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111 1983년 4월19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April 19, 1983

APR 19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모국 대형참사 속출

디스코클럽 화재로 25명 사망
시외버스에 행인 12명 치어 숨져

(대구 18일=연합)18일 새벽 대구에 있는 디스코·크럽에 화재가 일어나 적어도 25명이 불에 타 숨지고, 67명이 화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디스코·크럽 2층에서 1시30분경 일어나 1시간30분후에 진화되었다.

화재가 발생하자 2층에서 춤추던 1백여명(대부분 10대 청소년)이 불길을 피하기 위해 계단으로 몰려 내려갔으며, 이중 1명이 계단에서 넘어지자 뒤따르던 사람이 모두 넘어져 불길에 휩싸였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있었다.

디스코장 천장이 내려앉아 구조작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희생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수사중인 경찰은 누전에 의한 화재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논산 16일=연합)시외빼스가 16일아침 논산근방 국도상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피하려다 길을 건너던 행인12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논산으로 향하던 이 빼스는 행인들을 덮친후 10여미터 지그재그로 달리다가 골짜기에 부딪쳐 전복되는 바람에 타고있던 승객 30여명도 부상을 당했다.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지켜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북한대사 추방령

서울 IPU총회 저지목적으로
핀랜드 국회의원에 뇌물공작

(헬싱키=로이타통신) 핀랜드주재 북한대사 유재한은 국제의원연맹(IPU) 차기총회를 한국에서 열리지 못하도록 저지시키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핀랜드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발각되어 핀랜드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15일 밝혔다.

IPU로마총회는 금년가을 서울에서 총회를 갖기로 지난해 잠정 결정했으며, 장소에 대한 최종결정은 금주 헬싱키에서 열리는 132회 이사회 회의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

이 소식통은 북한대사 유는 전 핀랜드 국회의장이였으며, 현재에는 IPU의장인 요하네스·바오로레이넨씨에게 5,000달러의 뇌물을 주었으며,

바오로레이넨의장은 이돈을 받은 즉시 외무성에 넘겨주었다고 폭로했다.

핀랜드정부당국자는 14일 유가 필랜드법규와 외교관습을 위반함으로써 Personanon Grata(외교상 호감을 못받는 사절)로 선포되었다고 밝혔으며, 그후 페어·스텐백외무장관도 유가 핀랜드 거물정치인을 매수하려했다고 말한바 있다.

헬싱키주재 한국대사관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믿을만한 고위소식통으로 부터" IPU차기총회를 서울대신 토고(Togo)의 롬(Lome)으로 옮기기 위한 공작하에 뇌물이 제공되었다고 밝히면서, 아프리카국가 1개국이상이 뇌물에 관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식은 맛있다"

조·클락 보수당후보 교포가정 방문

연방 보수당(PC)의 당수선거에 출마한 조·클락(Joe Clark)전수상이 17일 하오7시 교민 홍중표씨집을 방문, 한식음식을 들면서 교민들과 환담했다.

검정색 계통의 양복에 타이를 맨 클락씨는 부인 모린여사, 보좌관 2명, 메트로·토론토의 조·클락 선거책임자 빌·앳웰씨등을 대동했다.

교민측으로는 홍씨부부 외에 장순채 한인회장, 조한철 회관건립위원장, 차선겸 실업인협회장, 이근우 승공문화협회장, 나상선 한인양로원건립위원장 및 김인철, 백효증, 나더현씨등이 부부동반으로 나왔다.

클락부부는 김밥, 새우튀김, 샐라드, 딸기화채, 경단, 송편등으로 짜여진 저녁을 맛있게 들었다.

"한국음식은 처음인데 정말 맛있다"고 클락씨는 말했다.

최근 변호사 자격증을 얻은 모린·클락여사는 "사진에서보다 몸이 가늘고 더 예쁘다"고 교포부인들이 말하자 "새 사진을 신문사에 보내주었으나 그들은 과거의 뚱뚱했던 사진을 계속 쓰고 있다"고 불평.

모린여사는 베이지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39년생으로 나이보다 훨씬 젊고 날씬한 클락씨는 최근 일부 영어신문이 교포들을 "영어도 모르면서 클락을 지지하는 급조 보수당원"이라고 비난한 내용과 실업인협회가 당면한 섹스잡지 규제문제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으나 언질은 피했다.

초청자 홍씨와 한인회가 주는 선물을 받은 클락일행은 밤9시 20분께 자리를 떴다.

토론토경찰 불평위원회 위원인 홍씨는 6월 오타와에서 열리는 보수당전당대회에서 클락씨를 당수로 지지하기 위해 보수당 스카보로지구당 욕·웨스트 선거구의 보수당 대의원으로 출마했다.

홍씨는 또한 토론토지역의 클락파 고위참모 6명중 하나로 알려졌다.

◆조·클락 전 보수당 당수가 홍중표씨집 리빙룸에서 교민들과 환담하고 있다.

1983 MISS KOREA

눈매고운 강영주
특기다양한 이석미

친근감 주는 강양

미스·코리아 후보 제8호인 강영주양, 만19세라는 발랄한 나이 덕인지 고운눈매, 큰 눈망울과 가식없는 자연스러운 몸가짐이 순진한 인상과 친근감을 준다.

나이아가라·폴에서 상점을 경영하는 강명래씨의 2남1녀중 외동딸로, 현재 토론토·도미니언은행에서 데이타·프로세싱 오퍼레이터로 일한다.

74년 이민올 때 불과 10살이었으나,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다. 취미는 음식만들기와 재봉, 특기는 그림. 장래희망은 패션디자이너.

키가 약간 작아 160cm 지만, 101파운드, 33-24-34의 균형잡힌 몸매를 가졌다.

◆강영주양

시짓기 좋아하는 이양

캐나다 미스코리아 후보 제9호는 키가 170cm의 늘씬한 아가씨 이석미(19)양.

피아노를 즐기는 여성답게 갸름하고 예쁜 손이 자기 "매력의 포인트"라며 상글 웃는다.

장기는 스케이팅, 취미로 시짓기를 즐긴다는 이양은, 독서중에서도 시읽기를 좋아하고, 시상만 떠오르면 곧잘 원고지 메우기에 열중한다고.

"지은 시 한편 보여줄 수 없느냐?"는 질문에 "자신 없어요"하고 살짝 얼굴 붉히기도.

서울서 태어나 두살때 캐나다로 이민온 이양은, 토론토서 자라고, Huron Heights고교 13년 졸업. 현재 회사에 다니면서 올가을 대학진학을 준비중이란다.

◆이석미양

카네이션꽃을 좋아하고, 캐나다처럼 자연미가 풍부한 스웨덴에 가보고 싶으며,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피아노라고. 식성은 김밥 애호가.

장래의 꿈은 치과위생사(Dental Hyginist)가 되고 싶다는 이양은 기계디자이너인 이봉수(51)씨와 송명자씨의 2남1녀중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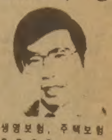
만약 미스코리아에 뽑히여 모국에 가게 되면 가장하고 싶은 일은 "한국에 가서 내가 자라난 캐나다를 소개하고 싶다"고.

한인볼링협회 추천.

로렉스 란콤화장품 보너스쎄일 귀국선물
오메가시계 45%~50% 할인
은하보석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Micro-Computer 교실안내

우리들 세 사람은 최근에 Computer의 보편화에 응해서 의욕적인 사업을 성취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Partnership으로 회사를 만들었읍니다.

수차에 걸친 회합과 계획과 그리고 면밀한 교재검토 끝에 회사목적의 하나인 Computer교육을 위해 Micro-Computer교실을 열기로 했읍니다. Computer교육은 자칫하면 장난으로 끝나버리거나 또는 융통성 없는 Computer언어교육이 되어버리는 결점을 지양하여, Computer개념을 기본서부터 가르치고 Computer와 통화하는 수단으로 Basic 및 Machine Code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여러분의 Comquter이해에 도움이 될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창조적인 의사나 조언을 항상 환영합니다.

Pion Computer Research
(1)Software Development
(2)Computer Education Service
(3)Micro-computer Sales

김재신 오덕근 주병돈 배

기 간 : 1983.4.30-6.25(매주 토요일 3시간)
장 소 : Norseman Plaza, Room 35(2층)
1125 Dundas E. Mississauga
(Dixie & Dundas)
원서마감 : 1983.4.23(토요일)
선 발 : (1)학생반은 적성검사를 거친후 선착순
(2)성인반은 선착순
인 원 : 교실당 10명내외
수 강 료 : 기간당 160불(2회분납가능)
연 락 처 : 김재신(H)459-3565
오덕근(H)275-0702
주병돈(H)845-4216
교 실 : 학생반, 성인반

강 사

김재신
—연세대학 이공대 수학과졸(B.Sc.)
미국UCLA대학원서 수학전공
미국 남가주대학원서 Computer 석사(M.Sc.)
현재 Northern Telecom근무

오덕근
—한양대학 전자공학과졸(B.Sc.)
Bell Canada서 Software Specialist로 근무
현재 Wardair에서 Data Base Administrator

주병돈
—서울대학 문리대 물리학과졸(B.Sc.)
미국 Tufts대학 대학원서 원자핵물리학석사
Boston대학 대학원서 이론물리학박사(Ph.D)
현재 Aetna Canada근무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P

500여 선수 참석

팬아메리칸 오픈 태권도 참피온대회

임스태권도도장(사범 임송학 3단)이 주최하는 83년도 팬·아메리칸 오픈 태권도 참피온대회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5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16일 에토비콕 올림피움에서 열렸다.

지난해 4월24일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2번째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미국에서는 뉴욕, 버팔로, 로체스타, 펜실바니아등에서, 캐나다에서는 토론토는 물론 몬트리얼, 쾌백, 위니펙, 칼가리, 런던, 포트에리, 벌링톤, 마캄, 스토니크릭등에서 출전했다.

낮12시부터 밤10시30분까지 속개된 이날 경기의 유단자급 결승전에서는 155파운드 이하의 경량급에서 버팔로에서 온 토니·오브론(19), 163파운드 이하인 미들급에서 토론토의 브리안·페리어(35), 163파운드이상인 중량급에서 버팔로의 빌·아담스(30)가 각각 우승했다.

여자부에서는 쾌백에서 온 프랑스·메니어(18)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심판은 해밀톤의 이석희 8단, 토론토의 박정태 8단, 위니펙의 한상수 7단, 뉴욕의 김석준 6단, 몬트리얼의 제임스·림 6단, 쾌백의 트랑·방·쿠안 5단, 몬트리얼의 엔드루·블랙 5단, 마캄의 돈·제임스 4단, 스카보로의 릭·패리스 4단, 뉴욕의 마크·액카디 4단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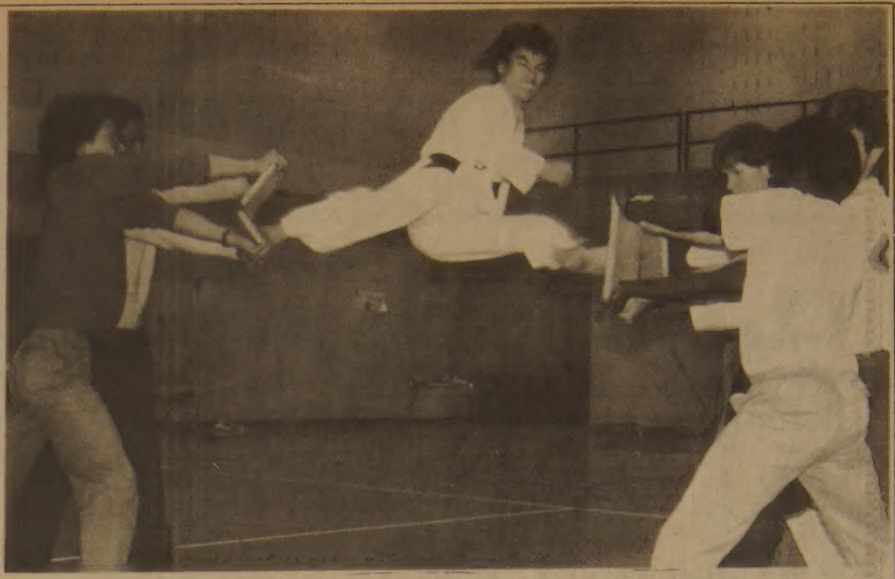
결승전이 끝난뒤 사범들이 격파시범을 보여 관람자들로 부터 열띈 박수를 받았다. 주최자인 임사범은 뛰어 2중돌려차기와, 뛰어 3중돌려차기등으로 송판및 벽돌격파 시범을 보였다.

유단자 체급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경량급
1)토니·오브론(19, 버팔로)
2)크리스티안·도발(20, 쾌백)
3)알레인·두메인(21, 쾌백)

▲미들급
1)브리안·페리어(35, 토론토)
2)아레이·아트킨손(30, 토론토)
3)자신스키·롬(30, 미국와체스타)

▲중량급
1)빌·아담스(30, 버팔로)
2)그레그·포스달(20, 해밀톤)
3)프레드 S. 바크리(33, 토론토)



◆임송학사범의 2중 돌려차기 송판격파 시범광경.

◆우승컵을 받고 포즈를 취한 체급별 우승자들. 왼쪽으로부터 헤비급 빌·아담스, 경량급 토니 오브론, 미들급 브리안·페리너 선수와 주최자인 임송학 사범.

고려대생들 횃불데모

경찰과 충돌, 70여명 연행

(서울=AP)수백명의 고려대학생들이 15일 교내에서 반정부시위를 벌여 이중 7)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횃불을 든 학생을 중심으로 수명의 학생들이 반정부구호를 외치자 시위학생수는 순식간에 불어났으며 출동한 5백여명의 전투경찰관이 주동학생들을 연행해 갔다는 것이다.

목격자들은 경찰이 캠퍼스에 진입해서 최루탄을 발사하자 학생들은 투석으로 맞섰다가 강의실등으로 피신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학교에서 금년들어 처음 발생한 이날 시위는 지난 1960년 4월의 학생의거 제23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시작했으며 이들은 이규호 문교부장관의 사임을 요구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지난 3월 개강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대학생 29명이 반정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이 실직데모대 주동

트루도수상에게 욕설

(나이아가라·폴스)웨인·톰슨(Wayne Thomson) 나이아가라 시장이 이끄는 약200여명의 실직 데모대들이 트루도수상 만찬회장에 몰려와 농성을 벌여 화제.

15일밤 이곳 섬프튜오스·인(Sumptuous Inn)에서 벌어진 수상의 자유당원과의 만찬회장에 실업농성자를 이끌고 나타나 71,000명의 주민중 9,000여명이 실직을 당해 캐나다내 제3위의 실업율을 기록하고있는 이곳에서 수상이 만찬회를 벌이는 것을 신랄히 비난하면서 "누가 이날의 만찬비용을 내는거냐"고 흥분했다.

톰슨시장은 이어 "이곳 시민들은 음식을 살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곳에서 만찬을 벌이는 트루도수상은 「후렌치 강아지」(French Poodle)이라고 야유를 던졌다.

공군 보라매회 친목파티 개최

1년6개월여전에 발족된 공군보라매회가 16일밤 남강레스토랑에서 자체내실을 다지기 위한 파티를 가졌다.

50여명의 회원을 갖고있는 공군보라매회는 회장이 공석중이고, 윤여경부회장이 회장대행 직무를 맡고 있다.

메트로·토론토 택시요금 5% 인상 전망

각종 물가가 뛰고 있는 가운데 메트로·토론토 택시요금도 가을부터 5%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메트로 면허협회 택시자문위원회 폴·글레이트만씨는 "우리는 택시료 인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가뜩이나 시민들이 이 내핍으로해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택시산업이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택시 운전사들도 역시이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을 표명하고 있다.

택시요금은 지난 77년부터 81년초까지 인상이 동결되어 82년 중반 약26%가 일괄 인상되었고, 작년에 6% 또한번 인상됐다.

현행 택시요금 가산은 기본요금 $1.20에 매 333미터당 20센트씩 가산되고 있다.

Pot O'Gold

금 액	당첨번호	보너스(Car)
10,000	605643	610031
25,000	315366	061904
50,000	725694	419785
100,000	363013	

한국일보 533-2361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쓰레기통속에 버려진 신생아

산책자가 발견 병원에 옮겨

(캠브리지)이른 새벽 쓰레기통속에 버려져 있는 신생아가 지나가던 산책자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을 구했다.

17일 새벽 6시30분경 아침산책을 나선 라멜·토스토우스씨는 지나던 길가에서 어린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고양이소리로 지나치려다 놓여있는 쓰레기통을 들여다 본결과 그 속에 옷가지에 쌓여 버려져 있는 아기를 발견했다.

라멜씨는 발견즉시 약 3Km 전방에 있는 캠브리지 메모리알 병원으로 가다가 경찰차를 발견, 밝혔다.

경찰은 조금만 더 늦어도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고 아기를 버린 부모를 찾기로 했다.

간호원들은 응급후 소생한 이 아기의 이름을 마이클(Michael)로 명명했다.

이 아기는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하고 고아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신생아. 산책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했다.

해병전우회 회장 최장복씨 선출

해병전우회는 15일 오후7시 제5회 정기총회를 블루어 클링톤하우스에서 갖고, 남상현회장 후임에 최장복씨를 선출했다.

신임 최회장은 세인트·죠지×블루어에서 도나스·숍을 경영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선거외에도 전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금년중에 자체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갖기로 결의했다.

부회장과 임원은 회장이 추후 선정할 예정이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黃昏의 사나이 <214>

헤로인 ⑨

"너희들을 죽이라는 부탁을 받았어"

『모두 네명으로 알고있는데 다른 두명은 어떻게 됐지?』

『죽었읍니다.』

일인이 얼굴을찡그리며 대답했다.

『누가 죽였나?』

거기에대해 그들은 쉽게 대답하려 들지를 않았다.

그때 열차가 멎었다. 열차의 소음이 사라지고 차안은 조용해졌다. 열차가 출발할때까지 사나이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수분후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나이는 다시 물었다.

『누가 죽였지?』

『이사람이 죽였어요.』

여자가 손가락으로 일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난 죽이지 않았어!』

일인은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당신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여자는 불리한 증언을 계속했다. 이제 여자가 노리는 의도는 분명해졌다.

『개같은 년! 죽여버릴테다!』

일인은 몸을 일으키려다가 신음을 토하며 도로 주저앉았다.

『모세는 어떻게 됐지?』

『모세는 다른사람들 손에 죽였어요.』

여자가 냉큼 말했다. 그러자 일인이 손가락으로 그녀를가리켰다.

『모세에 대해서는 이년이 잘알고 있읍니다. 이년은 모세의 정부였으니까요. 모세는 이년이 죽였을 겁니다.』

『아니에요! 신문에 났으니까 읽어보세요! 모세는 다른 사람들한테 토막살해당했어요!』

『신문은 봤어. 토막살해당한 것도 알고있어.』

여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흐느끼면서 상체를 수그리더니 갑자기 피스톨을뽑아들었다. 그러나 그순간 사나이의 피스톨이 먼저 불을 뿜었다.

숙!

여자는 피스톨을떨어뜨리면서 벽에 세게 부딪쳤다. 왼쪽 어깨에서 피가 뿜어져나왔다. 그녀는 손으로 어깨를 누르면서 경련했다.

『죽일수도있어. 까불지말고 묻는대로 대답해. 그게 너희들한테 좋아. 나는 너희들을 죽이라는 부탁을받았어. 그렇지만 물건을 찾았으니까 너희들을 죽일 마음은 없었어. 헌데 너희들은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굴지를 않아.』

『살려주세요! 잘못했읍니다!』

여자가 몸을 떨어대며 말했다. 일인도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와 그에게 매달리려고 했다. 캡의 사나이는 동전지갑을 여자에게 던졌다.

『이거 당신거지?』

여자는 그것을 집어들더니 눈을 크게떴다.

『기억나지 않나?』

『이걸 어디서?』

『모세의 어머니집에서 가져왔지. 거기에 당신이 떨어뜨리고 갔더군. 그속에서 메모지를꺼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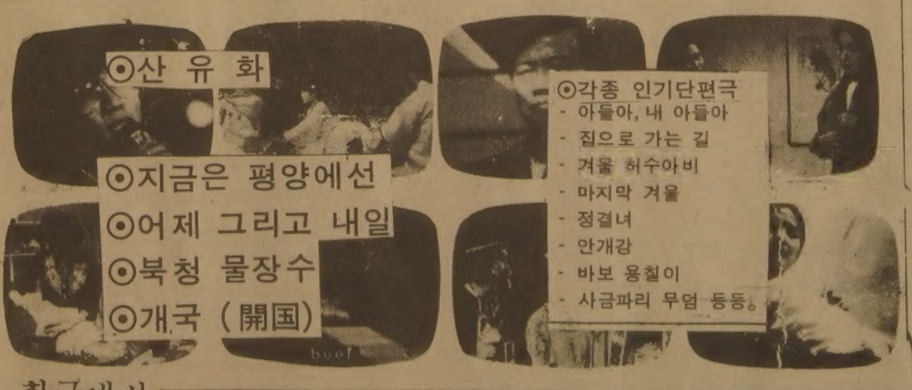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속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그건 당신이 쓴거지?』

그녀는 말없이 끄덕였다. 그녀는 거의 죽어가는 표정이었다.

朴 男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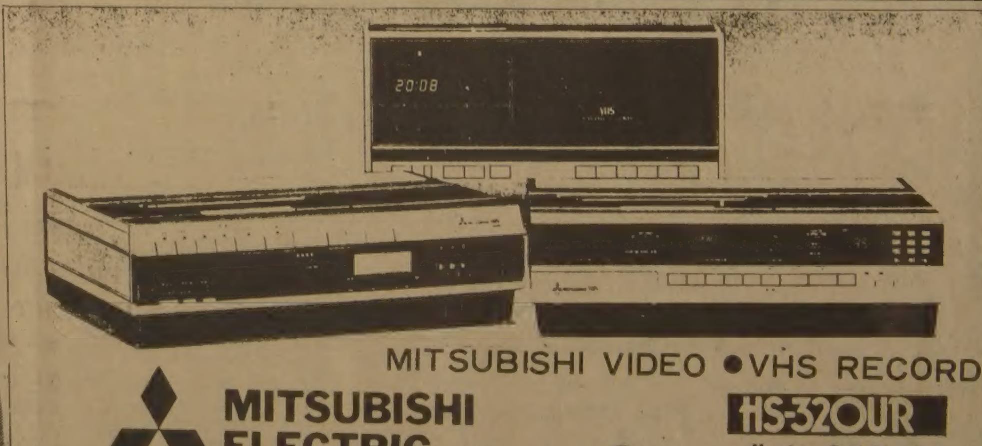
새로 비데오 테프 입하



⊙산 유 화
⊙지금은 평양에선
⊙어제 그리고 내일
⊙북청 물장수
⊙개국 (開国)

⊙각종 인기단편극
- 아들아, 내 아들아
- 집으로 가는 길
- 겨울 허수아비
- 마지막 겨울
- 정결녀
- 안개강
- 바보 용칠이
- 사금파리 무덤 등등。

한국에서
절찬리 상영중



MITSUBISHI VIDEO ●VHS RECORD
MITSUBISHI ELECTRIC
HS-320UR
Spec. $1,250.00
Reg. $1,499.95
HS-700UR
Spec. $859.00
Reg. $999.00

678 BLOOR ST. W. ☎: 532-0210 한국비데오센터 대표 손병헌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엘리너·풀처 모델학교에서 수업중인 학생들.(원내는 카운슬러 죤스양.)

모델학교서 선물 기증

한국인도 10여명 수강중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캐나다 최대의 모델양성학교인 토론토 엘리너·풀처(Eleanor Fulcher Ltd.)사는 23일 힐튼·하버캐슬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녀들에게 줄 푸짐한 선물을 선사하겠다고 제의해왔다.

엘리너·풀처사의 카운셀러인 제니퍼·죤스(Jennifer Jones)양은 15일 본사를 방문, 1)진에게는 모델학교 전과정 수업료($1,550) 면제, 2)선과 미2명에게는 미용코스(Beauty Course)수업료($395) 면제, 3)진·선·미중 1명에게 200달러상당의 화장품세트 1케이스를 제공하겠다는등의 약정서를 대회장인 김명규사장에게 전달했다.

죤스양은 이외에도 1)자신이 직접 21일에 있을 미인대회 리허설에 참석, 출전미녀들에게 전체적인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2)대회 당일에는 오후3시경에 미용관계 전문가들을 파견, 후보들의 미용을 돌보아주며, 3)대회 당일 도어·프라이즈(Door Prize)를 실시,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미용에 대해 무료지도를 해주기로 약속한다고 말했다.

엘리나·풀처모델학교의 전과정은 미용(Beauty 56시간), 개성및 자신(Personality & Social Confidence 9시간), 런웨이 기법(Runway Techniques 38시간), 사진(7.5시간), 테레비죤(9시간)등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과정을 이수하고 예비 및 최종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은 이학교가 주최하는 금년의 모델경연 패션·쇼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된다.

663 영스트릿에 위치한 엘리너·풀처모델학교에는 1년에 6,500여명이 각종 코스를 이수하며, 현재 학생수는 10여명의 한국인을 포함, 2,500여명에 달한다.

이 학교의 교장인 엘리너·풀처씨는 25년이상 캐나다 패션계에 종사한 여류명사이다.

한편 14일 코카콜라의 판매담당부□ 메니저인 윌·멜피너씨도 본사를 방문, 미스코리아 진에게 1,500달러의 상금과 1년간 무료음료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정서를 윤방현 집행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무료음료권은 매월 코카콜라 4상자를 1년간 공급하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한인실업인협회(KBA)회원 스토어에서 찾아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일보
533-2361

인상파화가 특별강의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는 오는 5월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인상파화가」(Impressionist)들에 대한 특별강의를 실시한다.

갤러리 안의 잭맨·홀(Jackman Hall)에서 열리는 이번 일정은

4월21일 : 르노아르(Renoir)

4월28일 : 드가(Degas)

5월5일 : 피사로(Pissarro)

5월12일 : 쿨렌(Cullen)및 캐네디언 인상파화가이다.

수강료는 회원과 학생, 노인은 $10, 일반 $15이다.

또한 오는 5월4일부터 1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영국전원가옥」(The English Country House)에 대한 강좌가 있다.

문예부흥시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각종 건축양식과 모형등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진다.

한편 구내 시청각센타(Audio-Visual Center)에서는 영국 BBC방송제공의 관광영화시리즈를 매주 금요일 12시30분 상영한다.

22일 : 에딘버러(Edinburgh)

29일 : 런던시(City of London)관광과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만화영화.

갤러리의 입장료는 성인은 $2, 학생(16세이상)은 75센트, 학생(12세~16세)은 50센트, 12세이하는 무료.

장소는 317 Dundas St. W. Toronto이다.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준비작업 완료(하)

〈16일자 1면에서 계속〉

심사위원 10중 절반은 여성

윤방현 : 이번 미인대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심사의 공정이 가장 큰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거 대회의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석현 : 심사위원 선정부터 공정했다고 봅니다. 주최자이며 사무국인 한국일보사가 심사위원 후보들을 집행위원회에 추천했고 집행위는 일부 후보를 빼고 새 인사를 보태어 심사위원단 10명을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했지요.

남지연 : 과거 심사경력보다는 예술분야, 의학계, 문학계등의 분야별 전문인사가 선정됐는데 무엇보다 심사위원 10명중 여성이 5명이나 낀것도 여권의 신장이랄까요?

이광민 : 이밖에 자격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인원제한상 심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었읍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명단은 대회현장에서 발표합니다.

이석현 : 일부 집행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나 그분들의 자격을 볼때 무리가 없는 선출이었읍니다.

이광민 : 결정된 심사요점을 약간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얼굴, 상체, 하체 및 기타등 크게 4가지로 구분했고 기타중에는 전신균형, 교양미(스피치), 한복, 야회복 심사를 포함시켰죠. 채점후 위원들이 투표로 다시 진·선·미를 뽑는 과거방식대신 점수에 의한 평가원칙을 세웠읍니다. 심사위원이 10명이나 되니까 한두분이 잘못 점수를 주어도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윤방현 : 대회 하루전인 22일부터 심사위원들이 미녀들 연습장에 나가고 미녀들과 저녁을 같이 하는것도 좀더 정확한 채점을 위해서지요?

남지연 : 물론입니다만 후보들이 채점을 너무 의식하지 않게해서 긴장을 풀도록 하고 피로감도 덜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서 나온 후보들이나 대회 관계자들, 또 교민들 모두가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문화행사에 참여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딱딱해도 안되고 그렇다고 너무 흐물흐물해서 저속해도 안되고… 즉 품위가 있으면서도 즐거운 행사, 네, 바로 그거죠.

이광민 : 요즈음이 대학교 시험때라 여대생후보들이 못나온 것이 섭섭하군요. 내년부터는 시험기간을 피해 대회날자를 잡아야 하겠읍니다.

이석현 : 참가후보들에게 상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려한 점도 언급합시다. 진·선·미 외에 미스한국일보상, 무궁화상, 메이플·리프상, 인기상, 매너상, 태극상, 목련상이 있고 이밖에 캐나다한인사진협회가 뽑는 포토제닉상(사진모델로 가장 좋은 미녀에게 줌), 예비심사때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특기상, 후보들이 선정하는 우정상까지 합하면 모두 13개나 됩니다. 일부상은 특정후보에게 겹쳐서 돌아가겠지만.

윤방현 : 무대상황도 잘 될것 같읍니다.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권순근 악단이 조용한 배경음악을 깔고, 미국서 여러번 미인대회사회를 본 지미·킴이 토론토의 강종희씨와 함께 마이크로폰을 잡지요. 가수는 「제2의 김추자」라는 장연화양. 강종희씨는 전 KBS 성우겸 아나운서였죠. 이밖에 앨토 신영자씨가 두나라 국가를 부를 것입니다.

남지연 : 극단 「얼」의 대표로 「맹진사댁경사」를 연출한 이장성씨가 프로듀서, CBC-TV의 세트·디자이너 장기철씨가 무대감독을 맡아 이미 작업을 시작했으므로 무대장치, 조명등도 예년과는 훨씬 다를것으로 기대됩니다.

윤방현 : 하여간 며칠 안남은 대회를 위해 계속 노력해서 성공시킵시다. 이 자리를 빌어 대회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주는 많은 교민들, 기관들 및 캐나다업체에 감사를 표시합시다.

(주 : 제8회 미인대회는 23일〈토〉 하오6시부터 토론토힐튼 하버·캐슬 호텔소속 콘벤션·홀 1층(토론토 남단 온타리오호수변 영·스트릿과 베이·스트릿 사이)에서 열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고교대항 배구대회

■일 시 : 1983년 6월18일(토) 오전9시~오후11시
■장 소 : BOYD CONSERVATION PARK (Hwy #7 North+Islington Ave.)
■회 비 : $60.00(각팀당)
■주장회의 : 1983. 6. 10(금) 오후7시 코리아 하우스

고교대항 야구대회

●일 시 : 1983년 6월25일(토) 오전8시~오후11시
●장 소 : ETOBICOKE CENTENNIAL PARK (Hwy #427 West+Eglinton Av. South)
●회 비 : $80.00(각팀당)
●주장회의 : 1983. 6. 17(금) 오후7시 아리랑 하우스

참가교 회장회의

각 고교 동창회장님을 모시고
자문을 받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1983. 6. 26(화) 오후7시
한국관

주최 : 경복고등학교 동창회
후원 : 대한체육회, 배구협회, 야구협회

북극의 신비를 벗긴다

알파·리지 탐사위한 작전개시

(아이스스테이숀, 세사)지구의 극지가 패 동떨어져 있고 고립된 것 같지만 21세기에는 이곳이 가장 좋은 자원의 보고로서 군사전략의 요지가 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루스잭슨씨가 말했다.

캐나다 알파·리지(Alpha Ridge)지역 탐사계획의 과학자인 잭슨씨는 과거 알라스카가 불모지역으로 방임되었다가 근래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2개월에 걸쳐 수행될 「CESAR」주둔 탐험계획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들은 평균기온 영하 40도의 북극 북방 475km 상에 있는 알파·리지 지점에 베이스캠프를 치고 빙산밑의 바닷속 지형, 성격, 해류등 각종 탐색을 비롯한 과학실험과 조사임무를 수행한다.

원래 알파·리지는 소련이 발견했으며, 그간 소련이 탐사해왔으나,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소련과학자들은 그간의 각종 연구결과를 알리지 않고 있는 형편이었다.

정보에 의하면 현재 소련은 3미터 두께의 얼음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미사일 운반잠수함을 개발해 이곳 주변을 전략요새화했다는 소식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미대륙과 유럽대륙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곳은 전략뿐만 아니라 오일과 광석등 천연산지로서도 각광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정확한 매장량은 추산할 수 없으나, 최근엔 천연가스와 거대한 석유공이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번 계획은 이들의 매장량은 물론, 북극주변의 지층의 어떤 깊이까지 매장되어 있는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캐나다는 앞으로 본격적인 북극개발연구가 시작된다.

이들은 수심 600미터 속의 돌과, 진흙등을 채취하고, 에코반사를 측정하여 빙산의 나이를 밝히고, 중력상태등을 밝혀 미래에 있을 수심탐사의 예비자료를 준비한다.

그외의 연구로는

▲약5백만년으로 추정하는 북극의 신비를 밝힌다.

▲각 레벨의 북극물을 채취하여 수질의 공해도를 밝힌다.

▲전파를 보내 지각의 두께를 탐색한다.

▲어류(생선, 새우, 해초)를 수집해서 해양생태와 환경적응도를 밝힌다.

▲해류의 중력과 열변동에 따라 변하는 지표의 지도를 작성한다.

이번 연구에는 각계각층에서 선발한 40여명의 전문과학자들이 극지에 상주하여 최신기술 및 재래기술을 병합한 각종 실험과 연구를 수행한다.

「CESAR」캠프는 거대한 얼음조각의 평지위에 간이실험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시계방향으로 돌게되어 있으며 적어도 하루 2Km씩 움직일 수 있어 각종 채취를 도울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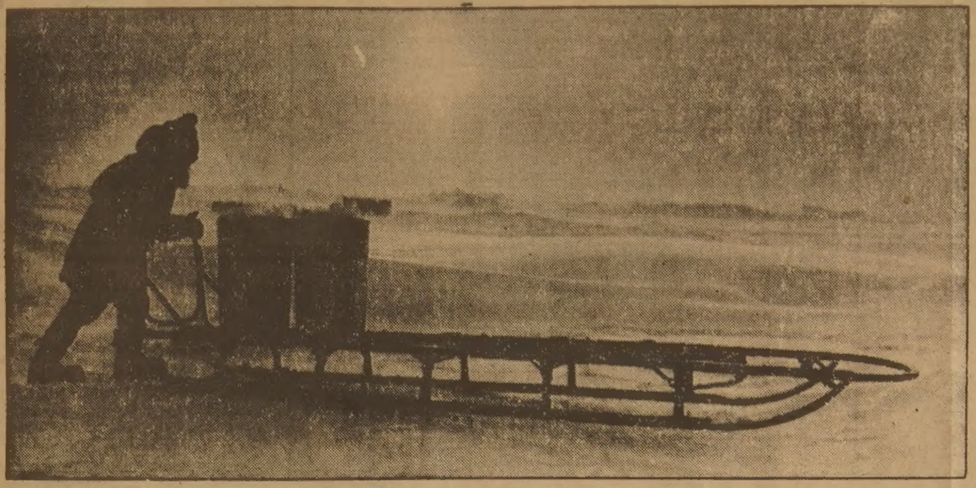
이 계획은 캐나다로서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북극의 얼음위에다 산업기지와 인간의 휴양소가 될지 모르는 모든 자료를 수집, 집대성하게 된다.

이들 과학자들은 또한 신비의 알파리지자체의 생성과정도 밝힐 예정이다.

캐나다 해양조약에 의하면 캐나다 최북단의 엘스미어 섬에서부터 560Km지점까지는 캐나다관할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조약후 10년 후에는 국제간에 공동연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CESAR」캠프는 하루에 두번씩 무선으로 통신하게 되며 이들에게 각종 음식물은 1주에 한번 대량 공수하게 된다.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 체력관리를 돕기 위해 뉴파운드랜드 출신 요리사가 특별 상주하는 것도 이채롭다.



◆쎄사(CESAR)탐사대원이 얼음밑에서 채취한 물을 썰매에 싣어 나르고 있다.

◆이번 탐사계획의 수석과학자인 한스·웨버씨가 방한용 털모자를 쓰고 빙원을 응시하고 있다. 평균 영하 40도(C)의 기온에서는 입김을 뿜는 순간 얼어 붙는다.

한국일보 533-2361

〈연재소설〉

혼돈 ③

제1편 출 국

가끔 들러 맥주를 마셨던 진고개 맥주집을 마음에 두고 길을 건너 충무로로 꺾어 들었다. 밤을 수놓는 네온싸인이 경쾌하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충무로는 서울에서 가장 고풍스러운 거리다. 곱게 늙은 건물들이 터줏대감처럼 버티고 서서 변할 줄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종로보다도, 인파로 들끓는 명동보다도, 충무로를 좋아했다.

초저녁인데도 진고개 맥주집은 붐비고 있었다. 익숙한 걸음걸이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쌍쌍이 앉아 떠들고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근심도 고뇌도 없었다. 오직 불그레한 행복이 있고, 넘치는 사랑이 있을 뿐이었다.

역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좋은가보다. 생활의 어려움도, 삶의 고뇌도 녹여버릴 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천씨씨의 생맥주와 땅콩을 주문해 놓고, 담배를 피우며 나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았다.

내가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사람, 나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에게 줄 수 있었던 사람, 담배를 길게 빨아 내뱉으며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내가 알몸으로 젖가슴을 흔들고, 궁둥이를 떨 때 남성들은 소리를 지르고 열광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내 육체의 더 깊은 곳을 탐미하기 위해,

"옷을 벗어라, 홀랑 벗어버려라." 요구하면서도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무대에서도 침대에서도 나는 쾌락을 위한 하룻밤의 상대일 수는 있었어도 일생을 함께할 사람의 상대일 수는 없었다.

나의 의붓아버지가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 애절하며 나를 범했듯이 그들은

"몸을 더 비비 꼬고, 신음소리를 높여라"

소리지르며 하룻밤의 탐욕을 불태우고는 그것이 끝이었다. 내가 싫었던 사람도,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도 하룻밤 만으로 끝을 맺어야 했다.

"나는 떠난다. 넓고 넓은 서부의 광야에서 남성을 지배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하룻밤의 상대로 희롱했듯이 그들은 나의 하룻밤의 놀림감이 될 것이다."

나는 네번째의 맥주컵을 비우고, 다섯번째의 맥주를 주문했다.

(오늘이 일월구일이니까 나는 아홉잔의 컵을 비우리라.)

서서히 술기운이 오르고, 소변이 잦아졌다. 그러나 나는 아홉번째의 잔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목구멍에 맥주를 부어 넣었다. 일곱번째의 잔을 비웠을 때, 술을 나르는 웨이터가 혀를 빼며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이도 어린 계집애가 기차게 마신다는 뜻일게다.

"내 직업을 알면 뺐던 너의 혓바닥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혀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리며 여덟번째의 잔을 비웠다. 몸을 잘 가눌 수 없었다. 그러나 춤을 추고 싶었다. 홀랑 벗은 알몸으로 몸을 꼬며 춤을 추고 싶었다. 힘껏 흔들고, 마음껏 떨어서 멸시와 수모의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몸, 새마음으로 새나라에 가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홀이 빙글빙글 돌고, 테이블 위의 빨강, 파랑, 초록, 노랑색의 컵에 담겨 깜빡거리는 촛불을 무대위의 내 알몸을 비추는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착각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아우성소리가 아득한 곳에서 들려오는 것같았다.

"야! 무대로 나가라. 나가서 추어라."

"어머니, 어머니! 당신이 유전한 몸으로 춤을 춥니다.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조국에서 마지막 춤을 춥니다."

"나는 누구에겐가 끌려가고 있었다. 동동 공중을 밟으며 끌려가고 있었다.(계속)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WHAT DO YOU DO FOR RELAXATION?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가 있는 친구에게서 편지가 오는 것을 보면 미국생활이 몹시 바쁘다고 항상 써 왔으나 그때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와 보니 누구나 공통으로 느끼듯이 정말 눈코뜰 사이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이렇게 바쁜 생활일수록 주말이나 시간나는 때가 간절해 지는데 그래서인지 미국인과 부담없이 여가 선용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된다.

「여가를 어떻게 보내세요?」 What do you do for relaxation? 이때 유의할 것은 전치사 for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또는 How do you spend your leisure time? 이라고도 하나이때 leisure의 발음을미국식 발음인 경우에는「레져」가아니고「티주어」라고 발음하여야 한다.

A: What do your do for relaxation?
B: I read or listen to music.
A: What type of music do you like?
B: I enjoy classical and semi-classical music.
A: How about going to the park concert with me tonight?

A:여가를 어떻게 보내세요?
B:독서나 음악감상을 합니다.
A:무슨 음악을 좋아하세요?
B:크라식과 쎄미 크라식을 좋아합니다.
A:오늘밤 저하고 연주회에 가시지 않겠어요?
B: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relaxation:동사 relax 진정하다의 명사형으로 진장을 품, 휴양, 오락.
park concert:공원 연주회.
leisure:틈, 여가.
listen to~:~을 듣다.
Ex)Listen to me.(내말을 들어봐요).
〈발음〉 concert:「콘써트」가 아니고「칸 으로 발음된다.

이연재물의 필자가쓴「생활영어」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on Grove Ⅲ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 됩니다. 가격은 권당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966-4050

털코-트 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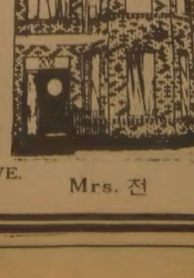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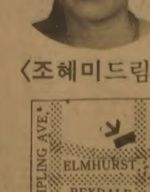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Angel Fine Art Studio

자녀들의 미술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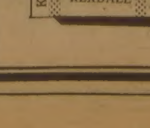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정서교육과 소질개발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였읍니다.

개강에 앞서 스튜디오를 오픈하오니, 관심있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관을 바랍니다.



〈조혜미드림〉

◇오픈리셉션
1983년 4월22일(금)
오후5시~9시
◇장소 •
2428 Islington Ave.
(Elmhurst Plaza 2층)
Suite 7A
☎749-8013(스튜디오)
745-8236(R)
□개강일시
4월30일(토) 매 토요일
오전10시부터 3시간씩



TRUST CLEANERS

인사말씀

금번 세가 불로어상가에 세탁소를 새로이 열고 교민여러분을 모시고 약소하나마 개업식을 갖고자 하오니 많이 왕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정서 드림

◆개업식
1983년 4월20일(수)
오후7시
◆개업일
1983년 4월21일(목)
◆드라이크리닝 각종세탁
◆각종수선
◆주소 : 704 BLOOR ST W
☎532-6218

이대환 不動産

★드라이브 인
▲도넛숍 : 주매상 $8,500, 렌트 $2,900, 아스킹 $320,000
▲도넛숍 : 주매상 $9,500, 렌트 $3,500, 아스킹 $319,000
★Mall안에 있는 Fast Food
주매상 $10,000, 아스킹 $320,000
★아담한 Take Out 식당(6일)
주매상 $6,500, 렌트 $500, 아스킹 $160,000
★Mall안에 있는 Gift숍(크리스탈전문)
년수입 $500,000, 아스킹 $14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1,000, 리스 5+5년가능, 아스킹 $13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5,000, 리스 6+10 아스킹 $220,000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세일즈맨 신영하

3黨대표 어제 國會 本會議 연설

民正 토지와 住宅정책 재검토 시급
民韓 전면 解禁·두長官 引責등 촉구
國民 國會法 개정·地自制실시 요구

국회는 14일하오 본회의를 열고 民正黨의 陳懿鍾대표위원, 民韓黨의 柳致松총재, 국민당의 李鍾贊부총재등으로부터 각정당의 대표연설을 들었다.

이날 3黨대표들은 정치 경제 사회등 각분야의 현안 문제에대해 各黨의 기본입장을 천명했는데 국회본회의는 15일부터 對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이날 첫연설에나선 民韓黨의 柳致松총재는『極刑을 받았던 정치인에게 완화조치를 취하면서 다른인사들을 계속 규제할 명분은 이제 없어졌다』고 정치被규제자의 全面解禁을 촉구하는한편 국회법개정과 地自制의 조기실시를 거듭 요구하면서『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정부·여당에대한 국민의 의혹은 심화될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金根祖씨 치사사건에대해 법치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로써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지적,『정부가 고문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내무장관은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고『일련의 문교행정은 대학입시제도하나 정착시키지 못한 터에 오히려 졸업정원제, 교수평가제, 國費유학생 선발시험 채점착오와같은 失政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문교장관에대한 정치적 引責추궁을 주장했다.

柳총재는『현행선거제도를 개선하지않는한 평화적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총력외교를 펴기위해서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야당과 국회의참여폭을 넓힐것을 요구하는한편 심각한外債難과 무역赤字를 풀기위한 획기적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국민당의 李鍾贊부총재는 조속한 지방자치제실시를 재차촉구하고 국회법과 언론기본법의 개정과함께 정치활동피규제자의 전면解禁을 요구했다.

그는『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필요이상으로 肥大해져있기때문에 權力남용의 소지가 많다』고 權力의분산을 주장했다.

李부총재는 또『최근 경찰관의 폭행치사사건은 분별없는公權力에의해 民權이 짓밟힌 예』라고말했다.

그는 경제문제에 대해『정부主導의 慢性的인 官治경제 통제경제에서 벗어나 民間주도 경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과 시책은 경제각료들의자만과독선으로지극히短見的이고 충격적이며 一方的이기때문에 국민들이 不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경제는 스스로를 엘리트로 생각하는 몇몇사람에 의해 경제模型의 實習場이되고 있다』고 지적한 李부총재는 原油價引下分을 1백% 국내油價에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土地公槪化와같은 국민輕視의 결정獨善을 버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등단한 民正黨의 陳懿鍾대표는 地自制실시에 관해『우리의 강한의지에는 변함이없으나 地自制가실시되어 그기능을 제대로발휘할수있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여건의 확보와 보다나은 실현적조건이 확보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地自制문제의 초점은 하루라도 그실시를 앞당기기위한 현실적인 효를 거둘수있는 방안에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서두르는일』이라고 적극적인태도를 밝혔다.

그는 국회법개정문제에 대해『50개의 외국事例를 면밀히 검토·분석한결과 우리의 현행국회법이 西歐선진제국의 국회법에비해 제도·기구·권한의 모든면에서 조금도 손색이없는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이라는것이 우리黨의 판단』이라면서 야당의 국회법 개정요구에 반대했다.

陳대표는 政治解禁문제에 대해『자율과 개방에따른 화합의 보람이있어 이미 대폭解禁의 실현을 보았다』며『정부의 이같은勇斷은 앞으로 더욱 국민화합을 촉진시킬것이며 그화합이 바탕이되어 보다 폭넓은 解禁을 앞당기게될것으로 믿어 의심치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문제에 언급, 토지와 주택정책의 철저한 재검토가 시급하며 아파트및 토지투기현상이 傍置하고있다』고 주장한후『토지정책은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며 문화적생활환경의 확보와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이룩되어야하며 따라서 토지이용과 거래에관한 합리적대책을 마련하여 지나친 토지소유偏在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의 사회還收를 도모하며 투기를 방지하고 地價의 안정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陳대표는 이어▲住宅難해결을위해 賃貸주택 건설을적극추진하고▲外資도입은 불가피한 투자사업에 국한시키고▲수입자유화는 산업별 발전단계를 감안하여 選別的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빗속 百萬인파… 이웅평씨 歡迎
어제 汝矣島서 住民證·정착금도 전달

미그19기를 몰고 북한을탈출, 귀순해온 전 北韓공군대위 李雄平씨의 의거환영및북괴규탄대회가 14일 상오10시 서울汝矣島광장에서 열렸다. 봄비가 쏟아지고있었지만 1백여만 서울시민들이 우산을받쳐들고 운집한 가운데 李雄平씨는 金聖培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았고 정착금과 보조금도 받았다.

한국반공연맹 (이사장 徐鐘喆)이 주최한 이날환영식에서 李씨는『저의귀순은 일시적인 충동에의한것이 아니며『북조선』땅에서는 미래에대한 희망과 장래가없다는 판단으로 인간답게 살길을찾아 한국의품에 안겼다』고말하고『북조선의 한 비행사에 불과했던 저를 혈육의정으로 따뜻이 맞이해준 서울시민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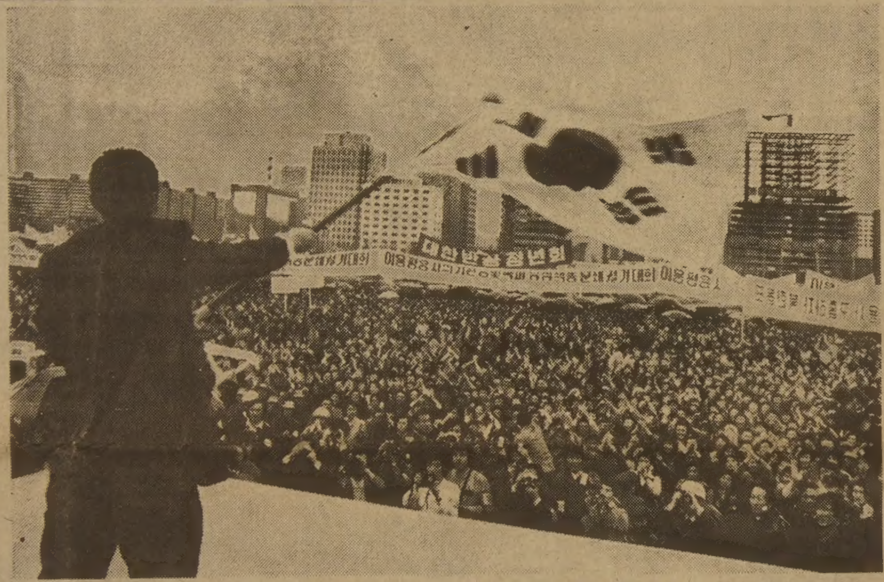
이어 李씨는『북괴는 전차와 자동차로 釜山까지 남하할수있는 시간표까지 짜놓을 정도로 전쟁준비를 이미 완료했다』고 폭로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귀순한 자신은 반공전선에 앞장설것이라고다짐했다.

徐鐘喆한국반공연맹이사장은 李씨를 환영하면서『李雄平용사의 반공의거를 동포애로써 맞이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金서울시장은 李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주며 서울시민으로서의 자유와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李씨는 李鍾浩원호처장으로부터 정착금과 보로금을, 한국청년회의소로부터 83년 용감한 청년상을, 그리고 이북5도민 중앙연합회 安明濬의장으로부터 태극기를 받는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수많은 선물을 받았다.

이날 李씨는 지난60년8월 귀순한 鄭洛賢공군대령과 65년10월 귀순한 李弼殷해군대령등두선배의격려를받았다.

이날 환영식은 安椿生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의 만세 3창으로 11시30분 끝났는데 李씨가 몰고온 미그19기 시험비행은 날씨때문에 생략됐다.



◇새삶 다짐하는 李雄平씨에 1백만市民 환영 봄비속에 汝矣島광장에 1백여만 시민이 운집, 李雄平씨의 의거를 열렬히 환영했다. 환영식이 끝난후 단상에서 일어난 李씨가 두주먹을 깍지끼고 시민들에 흔들어 보이고 있다. 【상오11시20분 汝矣島광장에서 李基龍기자찍음】

對北傀 군사전략 論議
韓美 연례安保協議會議

【워싱턴=李文熙·申鉉鎬특파원】지난13일 워싱턴에서 개막, 15일 상오까지 계속된 제15차韓美연례安保協議會는 그어느해보다 알찬성과를 얻고있다.

미국측은 13일에있은 예비회담 (군사위원회) 에서①미국의 세계전략②中東·中南美·아시아등 분쟁가능지역에 대한 군사전략③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對蘇전략④對北傀군사전략을 망라하여 우리측에 소상하게 설명했으며 양측은 이에대한 질의응답과 토의를 벌인결과 만족할만한 의견의일치를 보았다고 우리측대표단의 한소식통이 전했다.

이소식통은 또 양측은 올해를「韓美聯合전력 생산을 극대화하는해」로 정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연합전력생산극대화」란 예를들면 지금까지는 北傀가 AN2기로 비정규전부대를 남침시킬경우에 대비한 전술등을 한국군과미군이 독자적으로 각각 연구를해왔고 또 육군따로 공군따로 대비책을 연구함으로써 인력, 장비, 예산등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오던것을 앞으로는 양측의 긴밀한 협조로 전략전술연구를 분업화함으로써 韓美연합군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한편 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13일 하오7시(현지시간) 尹誠敏국방장관을 위해 베푼 리셉션에서『예비회담성과가 매우 좋았다』고 말하고 14·15일 이틀간있을 尹장관과의 단독회담및 실무대표끼리의 본회담을통해 더욱큰관심사가 협의될것이라고밝혔다.

와인버거장관은 또『지금 韓美양국은 어느때보다 군사·외교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밀접한 관계에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우방인 한국의 안보를위한 공약준수와 韓美양국군의 현대화및 상호협조증진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이어 尹장관이 이번에 그의 참모들과함께 수도 워싱턴을 방문토록 한것은 레이건대통령으로하여금 양국군사수뇌의협조증진에 관심을 갖도록하기 위한것이었다』고설명했다.

◇全대통령이 민족통일협의회의 新任간부들을 접견하고 있다.

"北傀도발에 완벽대비"
全대통령 民統協간부접견 환담

全斗煥대통령은 14일낮 청와대에서 민족통일협의회의 趙一文의장 (前建國大총장) 등 신임간부 23명을접견,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北韓의 내부사정을 소개하고 對南무력도발가능성을 지적한뒤『우리는 그들이 무슨행동을할지 이미 예측하고있기때문에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놓고 있다』고 밝히고『금년은 敵의 도발을 말살하는해로 정해 만일 도발해오면 다시는 도발을 못하도록 철저히 격멸해버릴것』이라고 경고했다.

全대통령은 또『우리는 많은 분야에걸쳐 이미선진국수준에 들어와있으나 아직미흡한점이 적지않다』고 지적,『경제분야에서 개인소득 2천달러목표를 돌파하고 의식면에서 遵法정신만 체질화하면 선진국대열에 들어설수 있으며 선진국이 되면 국제적인지지기반이 더욱확충돼 통일을완수하는길이 저절로 열릴것』이라고 말했다.

솔로몬수상 離韓

솔로몬 群島의 마마로니수상이 7일간의 訪韓일정을 마치고 14일 상오 離韓했다.

社會漫評

따라 읽어봐요./「공개념」…

제19회 한국演劇·映畵예술상 시상식
오늘하오6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연극 영화 T.V드라마 연예인총출연
※윤시내 이용 이은하 나미등 정상급가수 총출연
▲회원권예매 (1매당3만원) 롯데호텔 1층 로비(☎10교500번)
※KBS·TV실황중계
한국일보社

地平線

요즘 홍콩과 하와이 간에는 이색적인 세미나가 열리곤 한다. 하와이의 銀行家, 實業人들이 홍콩을 드나들며 세미나를 열고, 하와이야말로 홍콩의 자본이 가장 안전하게 받아들일수있는 곳이라고 강조하는것이다. 그 實業人들은 하와이가 미국의 일부여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것을 우선 높이 내세운다.▼하와이의 汎세계적 라이프 스타일도 홍콩 자본의 유입에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것 같다. 하와이는 정치적으로는 미국의영토지만 경제·문화적으로는 일본化한는 성향이 있다는 말이 있다. 와이키키 해변에서 햇빛, 여가,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 수도 미국인과 일본인중 어느쪽이 더 많은지 얼른 분간이 안간다. 노인층에는 서양사람들이 더 많은것 같으나 젊은 층은 동양사람이 보다 많아보인다. 그중 약 80%는 휴가차 온 젊은 일본인 들이다.▼하와이은행의 샘·에스타부르크스 부총재는『홍콩의 자본이 우선 하와이에 주차해 있는 단계이지만 결국은 하와이에 투자될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하와이에 어느정도의 홍콩자본이 흘러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있다. 우리나라에서 實名制문제가 거론되었을때도 느낀 일이지만, 돈이란 원래 밝은 햇빛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라든가 그액수가 공개되기를 꺼려하게 마련이다.▼에스타부르크스 부총재는 흘러들어온 홍콩돈의 규모가 벌써 수백만달러 線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홍콩사람은 우선 하와이에서 대개 50만달러(약3억7천5백만원)정도의 집을 사들이고 있다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금융·실업인을 비롯해서 홍콩에 적지 않게 진출해 있다. 중계항으로서 한국무역에 주는 비중이 커서 그 자본의 새로운 동향엔 남다른 관심이 가지 않을수 없다.▼英國의 홍콩 조차권이 오는 1997년에 만료됨에 따른 불안을 타고 臺灣, 싱가포르, 泰國, 필리핀이 홍콩자본을 유치하려 애쓰고있다. 하나 돈은 정치적 안정과 보다 나은 경제환경을 향해 미국, 캐나다쪽으로 흐르는 모양이다. 中共은 이를 막고자,「港人治港」여론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홍콩에 부여할 방침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미 늦은 감이 든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음주운전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합니다!

19 83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때: 83년 4월 23일·토 오후 6시
곳: 힐튼·하버캐슬 호텔
주최 : 토론토 한국일보사
후원 : 한인연합회·토론토한인회·총영사관

귀하는 83년도 미스·코리아

1. 박선희(17세)

2. 최경선(22세)

3. 조경희(19세)

4. 유경희(18세)

5. 이은경(21세)

6. 오미숙(23세)

7. 장덕향(23세)

8. 강영주(19세)

9. 이석미(19세)

MISS KOREA

〈등록순〉

社說

3黨代表들의 演說 —國民意思 반영시킨 成果있길

議長團과 各常任委員長을 선거하여 院의 體制를 새로갖춘 임시국회는 14일 本會議에서 與野3黨代表의 연설을 들었다.

與黨의 陳懿鍾대표는 청렴정치와 대화정치를 통하여 「국민을위한 정치」를 하는것이 政治先進化의 길임을 밝혔다. 政治先進化는 그래서 「정치의 질」을 높이고 民主政治本然의 기능을 원만히수행키 위한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與黨이 地方自治의 실시를향한 강한의지를 갖고있음을밝히면서 그 단계적실시의 當否와 이에 관한 철저한 事前검토가 先行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개정에 대하여는 消極的이었으나 政治人士의 解禁은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밖에 경제安定·土地대책·주택정책·건전재정·外貨도입合理化·무역정책·에너지문제·농어촌先進化등에 관하여는 경제체질개선과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民韓黨의 柳致松총재는 국회법과 地方自治法등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民主化·여야정당의 균형발전·正義사회구현·富의 분배·교육行政개혁등을 강조키도 했다. 또 公務員의 봉사자세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경제문제로서는 海外依存度減少·국제수지개선·농촌경제안정·勞使관계개선을 단행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柳총재는 국민의 人間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념과 용기있는 行動이 있어야 할것임을 결론적으로 지적하였다.

국민당의 李鍾聲부총재는 국회법등의 개정과 地方自治制실시를 요구 하였고 油價·不動産가격·土地공영제에 대한 行政관료들의 자세를 개탄하기도했다. 그는 또 活力있는 사회를 기약하기 위한 문제제기와 활발한 토의가 항상 전개되도록 할것을 바랐다.

그리고 결론으로 自律的인 개방사회건설을 위해서는 國民의 공감대에 의한 민주정치의 구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3黨의 이와같은 기조연설을 대하고 우리는 當面한 국가적 과제가 대체로 이 세대표의 연설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會期中 국회가 이들과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결론을 얻어서 이를 國政에 反映하는가를 진지하게 지켜보고자한다.

與黨대표의 말대로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극한을 배제하면서 대화의 정치를 실속있게 펴나가게되기를 기대한다. 또 與野를 막론하고 언제나 國利民福을 논의의 바탕으로 삼으면서 우선순위에따라 合理的인 결론을 내려야할 과제들이다.

이리하여 국회가 活性化하면 정치의 疎外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民主政治의 착실한 진전과 실속을 기약할수 있을것이다. 그런 성과를 생산하는 要件으로는 국회에 나가서 자리를 함께하는 각료를 비롯하여 行政府要員들이 우선 진지한 자세를 가다듬어 협조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서 진지한 자세라함은 질문에대한 솔직한 답변과 實情보고가 전제되어야 함을 뜻한다. 또 국회의원들의 施策평가發言에 대하여는 허심탄회한 태도로 수긍되는것은 이를 즉각 行政시책에 반영하는 겸허한 태도를 바람이다.

국민이 바라는것은 국회가 파란없이 차분한 가운데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옳게 수렴하는 일이다. 國家大計를 論하는 殿堂으로서의 議政의 약진상을 이번회기중 국민의 마음속에 보다더 깊숙이 심어주었으면 한다.

그러자면 議員各自가 앞을 내다보는 硏究와 分析을 거듭하여 千金의 무게있는 논의와 결의를 전진시키는 일이 요구된다 할것이다.

自由위한 百萬궐기 —北은 빗발무릅쓴 그喊聲 새겨야

자유를위한 1백50만 서울시민들의 결의가 쏟아지는 봄비를 무릅쓰고 어제 상오 여의도 광장에서 熱火처럼 타올랐다. 지난2월25일 미그19기를 몰고 귀순한 전북괴조종사 李雄平용사의 의거를 환영하고 남침 책동을 분쇄하는 장엄한 궐기대회가 반공연맹주최·이북5도민회중앙연합회 후원으로 열려, 자유민의 意志를 과시하고 반공의 결의를 이땅에 진동시킨 것이다.

자유는 용기와 결단으로 얻어진다. 生死를 초월한 李雄平용사의 의거는 거듭 이사실을 실증한다. 「자유의 飛翔」은 이제 확실하게 조국의 품에 날개를 내렸다. 자유의 욕구는 어떤체제나 이념으로도 억누를수 없는 인간본성이며 생존의 기본권이다.

李용사는 「자유」와 「압제」의 갈등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다. 그는 우리사회의 인간다운 생활과 풍요를 목격하면서 북한의 참담한 현실과 뼈아픈 「對照」를 어제 대회 현장에서 낱낱이 밝히고 힘있게 증언해 주었다.

탈출에 성공한후 계속 그가 폭로한 「北의實相」은 우리의 경각심을 더욱 일깨워줄 뿐이었다. 평화의 假面을 쓴 북괴당국의 남침준비는 철저하고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예산의 50%를 軍備확장에 쏟아 붓고, 10만명이 넘는 특수부대를 무장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지하경도·진지공사를 끝냈으며 한국의 전후방을 가림없이 침투할 입체전계획과 釜山까지의 남침 시간표도 짜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전쟁광분은 결국 북한주민의 희생을 강요할수 밖에 없다. 식량과 각종 물자부족에 허덕이며 생존은 있어도 인간이 누릴 생활은 없는 현실이다. 李雄平용사가 북한주민의 생활상이 남한보다 20년은 뒤졌다고 한 말은 오늘의 「北韓참상」을 그대로 전해주는것으로 볼수 있다.

보태서 저들은 세습체제구축과 내부모순의 어지러움을, 오히려 「남침의 긴장」조성으로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중이다. 또 우리가 유치한 IPU총회, 서울올림픽개최를 방해키 위해 파렴치한 책동을 벌이고 나섰다.

그들을 위해 외국의 국회의원들에 뇌물공세와 매수공작을 펴다가 거절당한 사실까지 근자에 드러나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지경이다. 수단을 안가리는 방해공작은 우리 내부혼란을 꾀하려는 기도를 벌일것도 뻔히 내다 보인다. 부질없는 불장난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이것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수법을 우리는 각별히 경계해야 할것이다.

하나 어떤 불순한 도전과 책동도 세계인의 양심과 민족의결의가 결코 허용치 않을것임을 북괴는 늦기전에 깨달아야 한다. 李雄平용사는 바로 그런 침략과 도발 음모를 알리는것이 그의 召命이라고 밝혔다. 「반공의 전사」다운 용기를 우리는 거듭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 국민은 이제 北傀의 迷妄을 깨뜨릴수 있을만큼 힘을 길렀고 자신감에 넘쳐있다. 이번 궐기대회의 결의문대로 對共경각심을 높이고 北傀의 도발을 억누를 수있는 강력한 반공의지를 앞으로 더욱 키워 나가야할 것이다.

이 강력한 국민적 결의 앞에서 북괴는 더 이상 침략의 야욕을 지탱하기 어려움을 인식해야 하겠다. 자유민의 마음은 뭉쳐있다. 어제의 궐기현장은 이를 과시하는 것이었다.

이란沿岸 油井 또파괴

이란·이라크砲擊戰… 미사일맞아

【테헤란·바레인外信=聯】연3일째 지상과 공중에서 격렬한 접전을 벌여온 이란, 이라크양국은 원유수출로 위기가 고조된 페르시아灣에서 해군함정들을 동원한 포격전을 전개했으며 이때문에 이란의 연안유정1개소가 더파괴된것으로 13일 보도됐다.

이란의 IRNA통신은 이라크순양함6척과 헬리콥터들이 12일밤 이란 노우루즈유전부근의 유정을 공격하는데 가담했으며 유정1개소가 이라크군의 미사일에 맞았다고 전했다.

후세인·무사비 이란수상은 이날 각의를 마친후에 가진 회견에서 이라크군의 공격을 받은 유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곧 진화됐다고 밝히고 이라크는 페르시아灣을 오염시키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테헤란 방송은 이란해군은 연안을 공격해온 이라크순양함중 1척을 격침시키고나머지는 격퇴시켰다고주장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또 이라크지상군이 13일 남부전선의 파케흐 지구에서 공격을 가해왔으나 이란군의 역습에 걸려 9백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성명은 전투가 가열된 지난 10일이래 이라크軍의 사상자수는 6천4백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라크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의 대형함정 2척이 12일밤 이라크연안으로 접근해왔으나 自國海軍의 포격으로 격침됐다고 전하면서 이란軍은 남부전선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이라크 해안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軍은 또 13일 남부전선 미산지구에서 지상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라크 공군기들은 이란軍의 거점에 1백16차례 공습을 가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늘도 무심하지…끝없는 印度의 災難 印度의 캘커타東北지역을 강타한폭풍 (토네이도) 으로 집을 잃은 파르가나스지구 가이가타마을의 한가족이 12일 폐허위에 앉아있다。이 폭풍은 24명의 사망자와 5백여명의 부상자를 냈다。 【캘커타13일AP電=聯】

中共, 홍콩에 첫 민간종합商社 설립 — 對外교역 확대·외국 投資촉진 담당

【홍콩=聯】중공은 ①대외교역의 확대 ②외국투자의촉진 ③기술교류의 강화를위해 홍콩에다 최초의 민간종합상사를 설립했음을 발표했다고 13일 홍콩의 일간지들이 北京발로 보도했다.

이 회사의 설립을위한 법적절차를 마치고 곧 홍콩에 회사본부를개설할 중공최초의 민간종합회사 「光大實業공사」의 이사장에는 중공의 前국가주석 故劉少奇의 처남인 王光英(64·劉少奇의 妻 王光美의 오빠)이 취임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이軍, 해안도로차단 — 순찰차량 공격이후

【베이루트SPA=聯】레바논점령이스라엘군은 13일 남부항구도시티레와 시돈으로 통하는 해안도로를차단했다。

이스라엘군은 12일 순찰차량 2대가 공격을 받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이스라엘군은 이외에 헬리콥터를포함한 병력을 투입하여 근처 과수원과 난민촌에서 소탕작전을 벌였다.

外信안테나

對이援助 3억1천여만弗 增額 — 美下院 外交委 유럽·中東 小委

【워싱턴UPI=聯】미국하원외교위원회 유럽및 중동문제소위는 12일 행정부가 요청한 84년도의 對이스라엘원조액을 3억1천5백만달러 증액시키는 한편 후세인요르단국왕이 중동평화협상에 응할때까지 요르단에대한 신예공격기판매를 금지시키자는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趙紫陽, 뉴질랜드에 양국友好관계 강조

【크라이스트처치(뉴질랜드)AFP=聯】중공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한 趙紫陽은 13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베풀어진 한연회에 참석, 짤막한 연설을 통해 『중공·뉴질랜드양국관계는 양국이익에 도움이될뿐만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백30억弗計上 적자예산 편성 — 사우디, 73년오일쇼크이래 처음

【마나마=聯】세계최대의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3일 3백50억 사우디리얄(1백30억달러)의 적자를 계상한 세출 2천6백억리얄(7백65억달러)、세입 2천2백50억리얄(6백62억달러)규모의 83~84회계연도 예산을 확정,발표했다.

사우디가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는 지난 73년의 제1차 오일쇼크이래 이번이 처음으로 세계석유수요의 감소와 유가하락으로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波바웬사 한때연행 — 자유勞組모임 관련

【그다니스크(폴란드)UPI=聯】불법화된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바웬사가 13일 경찰에 연행되어 그가 지난주말 자유노조 지하운동가들과 만난데대해 약5시간동안 심문을받은뒤 풀려났다고 폴란드국영통신이 보도했다.

동엔 突風, 서엔 洪水, 남엔 地震 — 地球村 또 天災의 수난

【뉴욕·런던UPI·AP=聯】지난12~13일 이틀동안 인도·중공·타히티섬에 돌풍이 휘몰아치고 프랑스와 서독에 홍수가, 그리고 페루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여 세계 6개재해지역에서 모두 1백60여명이 사망하고 1천8백여명이 부상했다.

각 지역별 재난상황을 보면,

▲캘커타(인도)=12일 4분동안 돌풍이 이지방의 4개마을을 휩쓸어 50명이 사망하고 1천5백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福建省(중공)=돌풍이 13일 중공 福建省 2개마을을 7~8분동안 강타, 54명이 숨지고 1백63명이 부상당했다.

▲본(서독)=수일간 계속된 폭우로 라인강이 지난70년이래 최고수위에 이르렀고 본 등 인근지대일부가 물에 잠기는 소동을 빚었다.

▲프랑스=4일동안 계속된 홍수로 프랑스북부지방에서 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리마(페루)=13일 강도5·2의 지진이 발생하고 홍수와 산사태가겹쳐 10여명이 사망했다.

日·蘇 긴장解消 실패

副外相회담 開幕 사할린僑胞문제 冷淡

【東京AP=聯】일본과소련은 13일 북방4개도서 영유권분쟁과 소련SS20핵미사일의 극동배치문제로 야기된 양국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문제에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채 이틀간의 실무급회담을끝냈다.

이날 이틀째회담에서는 특히 나까지마·도시지로(中島敏次郞)일본외무차관이 소련외무차관 미하일·카피차에게 2차대전종전이래 사할린에 억류돼 있는 한국교포 약2천5백명의 본국송환에 소련측이 협조해줄것을 요청했으나 카피차는 『우리에게는 한국과의 문제(송환문제)가 있다』고만 말했다고 일본의 외무성관리들이 전했다.

이 관리들은 또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郞)외상이 이날 카피차와 회담한자리에서 카피차가 日·소양국의 경제관계강화및 시베리아공동개발착수를 제안한데 대해 『양국간에 안정되고 장기적인 상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일본은 對蘇경제협력을 확대할수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駐캄 베트남軍 내달일부 撤收

【방콕AP=聯】베트남은 13일 타이·캄보디아국경지역에서 무력충돌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약1만8천명으로 추산되는 캄보디아주둔병력의 일부를 다음달에 철수할것이라고 발표했다.

북녘 휩쓰는 偶像化 狂風 — 오늘 金日成 71회 生日맞아 소동

【서울=聯】美國의 두번째 유인 우주왕복선 챌린저5號의 성공적인 처녀우주비행에 전세계인류가 경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 요즈음 우리와 地脈과血脈을 함께한 北녘땅에는 이 宇宙시대가 무색한 金日成父子우상화광란이 金日成의 71회생일(15日)을맞아 흡사 20세기의 우화처럼 펼쳐지고있다.

北傀집단이 올들어 金日成의 「생일」분위기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한것은 이미 지난 3월에 접어들면서부터-.

北傀는 海外서의 金日成 우상화선전을 위해 막대한 外貨를 들여가며 金의이른바 勞作등의 출판과 개인 선전광고를 대량 게재하는가하면 金日成 노작발표회니 생일기념 강연회니하는 집회를열어 개최하고 여기서 조작된 金日成에대한 찬양문구들을 대내선전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 金이 마치海外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인양 미화·粉飾하기에 안간힘을다해왔다.

北傀는 또 그들의 선전·선동매체를 동원하여 北韓전역의 근로자들에게 올해상반기 작업목표량을 4·15까지 [illegible] 초과달성」할것을 반복 독려, 金의 生日을 주민들에 대한 강제 노역의 時限으로 삼아왔으며 또 이를 위해 각종 훈장·영웅칭호·붉은기 수여등을 남발, 선심공세와 함께 對金日成충성심 촉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北傀는 또 생일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1일부터 金日成개인우상화 송배를 주제로한 선전영화를 「映畵상영 순간」이란 명목아래 北韓전역의 주요도시별로 일제히상영하는가하면 平壤에서는 金日成의 온갖 날조된행적과 「治績」을 묘사한 사진·美術品展들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만경대상 체육대회등각종 체육행사도 펼치고있다。

北韓지역은 大型감옥 — 벨기에紙、金日成偶像化비난

【제네바=聯】벨기에의 브뤼셀에서 발간되는 벨기에어 일간지 「라·리브르·벨지크」는 최근 「은둔의 왕국 북한」이라는 제목의 12페이지에 걸친 장문의 기사에서 북한의 내막을 상세히 보도하고, 北韓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11일자의 이 신문은 「북한지역은 한마디로 대형감옥」이라고 표현하고 「구두도 조직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모든것이 집단적으로 연구동원체제에 살고있고 신앙을 강화하도록 짜여져 있는 1천8백만 북한주민은 단1분도 자기시간을 가지지 못하게돼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김일성은 북한주민들과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철저히 단절함으로써 외부세계는 모두가 가난하며 북한이야말로 「사회주의 낙원」임을 믿게끔 하고있다」면서 북한의 대남도발현실도 상세히 보도했다.

金正日 2인자公式化

北韓보도기관 행사참석 序列2位로

【東京AP=聯】金日成의71회생일을 하루앞둔14일 北韓의보도기관들은 金의아들인 金正日이 국가서열상 제2인자임을 분명히 하고나섰다.

東京에서 청취된 平壤방송은 13일 平壤의 한 水門공사준공식에 참석한 당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도하면서 金正日을 金日成다음으로 올려놨다.

北韓에서 金正日은 그동안 사실상의 제2인자였지만 형식상으로는 부주석인 金一다음으로 그의이름이 올랐었다.

金正日의 이름이 金日成다음으로 올랐던 유일한 예외는 지난1월 부주석 康良煜의 장례식때였는데 東京의북한소식통들은 康이 金日成의 친척(외삼촌)이었던 점과 관련, 그것이 제2인자 격상을 의미하는지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보았었다.

13일의 참석자명단에는 金日成부자 다음에 무력부장인 吳振宇부주석 朴成哲및 林春秋가상위에올라있었다.

人事異動

畜協 ▲한국양토조합장 秋祥鳳(15일字)

文敎部 ▲교직국재외국민교육과장 沈明變 ▲학술원총무과장 韓相雨 ▲보통교육국과학기술과장 李寶寧 ▲全南大총경리과장 高在完 ▲全北大총무과장 明敏在(13日字)

◇가장 신선한 「미스83년 봄」 남지 니스(NICE)에서 열린 미스83년봄 선발大會에서 가장 신선한 봄아가씨로 선발된 이곳 모델出身의 사비느·드·미셰린孃。【키스톤=聯】

生計費 가장비싼 곳 라고스 — 가장 적은 도시는 멕시코市

세계에서 가장 생계비가많이드는 도시는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이며 가장 적은 돈으로 생활할수있는곳은 멕시코시티인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입수된 비지니스 인터내셔널사가 세계86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생계비조사에 따르면 뉴욕의 생계비지수를 1백으로 할때 라고스는 1백44를 기록, 뉴욕보다 생계비가 44% 나 많이드는것으로 나타났으며 東京이 1백30으로 2위, 카이로가 1백15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聯】

노래하는카드 人氣 — ★臺灣에서 注文쇄도·

최근 臺灣에는 노래를하는 생일축하 카드가 등장,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있다.

이 카드는 반도체칩을 이용한것으로 카드를 손에쥐면 생일축하노래가 흘러나와 축하받는 사람을 깜짝놀라게하는데 이 신기한 상품에 대한 주문이 쇄도하는바람에 臺灣의 전자제품제조회사에는 매달 6백만개의 반도체칩을 생산해야할 정도이며 올해 7천만달러어치의 해외수출을 기대하고있다고。【CNA】

政局往來

「정치적引責」등 野의 對정부 攻勢에 與선"모범적 정치인 자세確立…"

◆통일에대한 희망·자신감심어달라

全斗煥대통령은 14일 낮 민족통일협의회 新任간부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80년代에는 우리의 꿈인 선진조국창조와 조국통일을 성취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고한 主役이 돼달라』고 당부.

全대통령은 『선진조국의 창조나 조국의 통일과업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멀지않은 장래에 성취할수 있는 과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깊이 일깨워주고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달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과 기회를 더욱 슬기롭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강조.

◆各黨대표연설 통해 靑寫眞경쟁

14일하오 국회본회의의 3黨대표연설에서 各黨대표들은 각각 40여분간의 연설을 통해 11代국회 前半2년을 결산하고 후반2년에 대한 각당의 靑寫眞을 제시.

첫 연설자인 柳致松民韓黨총재는 특히 정치활동규제자 전면解禁등 각종 정치현안문제와 내무·문교장관의 「정치적 引責」주장대목에서 억양을 높였다.

그는 또 「지난2년간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약속했느냐」고 묻고는 『정부가 보는 눈과 국민이 보는눈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고 양자간에는 不信의 벽이 쌓여져 가고있다』고 질책.

柳총재는 국회활성화를 촉구하는 대목에서 『국회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선진화의 구실로 국회를 어떤 틀속에 定型化해서는 안되며 대립자체의 강박감때문에 침묵하는 국회는 죽은 국회』라고 강조하기까지。

이어 국민당의 李鍾聲부총재는 최근 경찰관의 폭행치사사건에 언급, 『정부각료 여러분의 가족이 私人이아닌 공직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가상할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겠느냐』고 묻기도.

그는 또 『역사는 도도히 흐르는 물줄기와도 같아 아무도 그흐름을 막거나 바꿀수없다는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될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와 애국을 강요하기에 앞서 국민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따라갈수있는 분위기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

마지막으로 民正黨의 陳懿鍾대표는 『우리모두는 이미 지난2년동안 우리정치史上 가장모범적인 정치인의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어 가고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날카로우며 아직은 우리에 대한 믿음보다 懷疑論的 기대가 더 크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그는 또 『俗된 政客은 다음선거만을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인은 다음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우리모두 선진조국이 기다리는 다음시대를 생각하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 청렴한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을 높이고 대화정치의 기풍을 정착시켜 이 11代국회가 민주憲政을 굳게다진 선구자들로서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與野의원들…代表연설 서로批判

14일하오 3黨대표연설이 끝난후 與野의원들은 연설내용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함께 만만치않은 비판을가해 눈길.

民正黨의 康吉正의원은 『柳致松民韓黨총재는 종전보다 새로운 문제점을 부각시키지 못했으며 李鍾聲국민당부총재는 평의원이 해도 괜찮을 만한 평범한 문제들을많이 지적했다』, 權明憲의원은 『대표연설은 실행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하는데 야당이 이를 무시해버렸다』고 批判.

民韓黨의 許景九의원은 『이번 국회는 시작전부터 심한 激浪과 폭풍이 예상됐지만 대표연설을 듣고보니 폭풍은커녕 微風도 불것같지 않다』고 3黨대표연설을 모두 꼬집었고 趙秀相의원은 『民正黨이 국회법을 고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것은 對話정치潮流에 반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당의 金顯宣·趙炳鳳의원등은 『民正黨은 집권정당으로서의 의지를 보이는데 실패했으며 民韓黨은 야당의 입장을 뚜렷이 제시하지못했다』고 지적하기도.

◆美合參은 코리언 마피아로구성돼

13일 하오7시(한국시간 14일상오9시) 워싱턴美국방대학원 장교클럽에서 열린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주최리셉션에는 尹誠敏 국방장관·柳炳賢駐美대사등 한국측 대표단과 존·베시 美合參의장 로버트·롱태평양지구사령관 세네월드대장등 韓美양국군장성등 3백여명이 참석、바로 이곳 워싱턴에서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이후 30년동안의 血盟的 우의를 다져온 韓美관계에 관해 이야기를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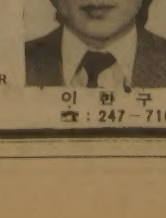
駐韓美軍사령관시절 「목사님」이란 別名을 가졌던 베시合參의장은 『위컴대장이 육군참모총장에, 내정되어 있고 가브리엘대장이 空參총장으로, 태평양해군사령관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왓킨즈대장이 海參總長직을 각각 맡고 있어 현재 합동참모회의는 코리언마피아로 구성돼있다』며 『金日成에게 겁을 주기위해서도 계속 한국과 인연을맺은 멤버로 合參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조크。【워싱턴=李文熙특파원】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 (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토론토시
1983년 4월24일 부터 10월30일
써머타임시간 공고
토론토시는 1983년 4월24일(일요일) 오전2시에 시작해서 10월30일(일요일)까지 써머타임을 실시합니다.
시계를 한시간 앞당겨 돌려 놓으십시요.
Roy V. Henderson
City Clerk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술면허를 취득했읍니다.
ㅁ맥주 ㅁ정종·와인등
〈지역에 따라 주문배달합니다〉
☎537-0432
내고향
통닭집
658½ BLOOR ST. W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 셀본서쪽)

O'INCHON RESTAURANT
오'인천식당
아늑한 분위기, 고향의 멋과 정감이 깃든 오'인천. 가족, 벗, 다정한 연인들과 YONGE ST. 를 거닐면서 ROSEDALE SUBWAY를 이용하시어, 함께 들려 주세요.
ROSEDALE SUBWAY
BLOOR
YONGE ST.
ㅁ한식, 일본식, 양식.
주류일절취급
1112 YONGE ST.
☎921—4468 박승홍
1자격증 소유한 요리사 구함.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폭행두警官 구속起訴

서울地檢 "再搜査서 더이상 밝혀진것 없다"

韓一합섬理事사건

韓一합섬이사 金根祖씨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펴온 서울지검특수1부 金道彦부장검사는 14일 치안본부수사대 金萬熙경위(38)를 폭행치사및 독직폭행혐의로, 羅基瑄경사(48)를 독직폭행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金부장검사는 이날『검찰의 재수사결과 치안본부의자체조사로 밝혀진 사실외에는 더이상 드러난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재수사결과 金경위는 지난달21일 하오9시께부터 부산中區大廳洞2街30 산장여관308호실에서 한일합섬의 비업무용토지재매입사실과 관련, 金根祖씨(41)를 입찰방해혐의로 조사하면서 팬티만남기고 옷을벗긴채 손바닥으로 金씨의가슴을 여러차례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반복시키는 한편 엎드려뻗쳐한 상태에서 여관방열쇠가달린 플래스틱고리로 발바닥을 여러차례 구타했다는것이다.

金경위는 이어 金씨로하여금 방바닥에서 허리를 굽혀 머리를 방바닥에 대고 두손은 허리에 얹게한후 오른쪽 빰을 때려 왼쪽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하는등 다음날 상오1시30분까지 폭행을가해 金씨의 왼쪽머리에 두피내출혈상, 머리윗부분(두정부)에 피하출혈상을 입게해 3일후인 25일하오3시49분 釜山大의대 부속병원에서 외상성내출혈로 사망케했음이 밝혀졌다.

羅경사도 역시 지난달21일 하오10시30분께 같은 산장여관 308호실에서 瞬星그룹의 비업무용토지 재매입사실에대해 이그룹계열회사인 경남개발 진흥사원 章晋瑄씨(29)를 입찰방해혐의로 조사하면서 오른손으로 章씨의 왼쪽빰을 2~3회때리고 머리를잡아 아래위로 흔드는등 폭행을 했다는것이다.

金경위는 金根祖씨 사망직후인 3월27일 치안본부에구속돼 지난1일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찰은 지난4일 국무총리가 4개 재벌기업의토지부정재매입사건과함께 金씨의 고문치사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도록 지시한후 그동안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또羅경사는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후인 지난9일 뒤늦게 치안본부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후 조사를 받아왔다.

公園 약구장서 10代소년 變死

【大邱】14일상오9시께 대구시西區內塘6洞 두류산공원야구장 서남쪽벤치앞 땅바닥에 13세가량의소년이 숨져있는것을 인근에사는 김모씨(21)가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절벽밑에 50代變屍

【晋州】13일하오5시께 경남山淸郡矢川面中山里 해발 9백m지점 용추폭포 낭떠러지에 신원을알수없는 50대남자가 숨져있는것을 약초를캐던 이병기씨(35)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聯】

확성기·교통기관·工場등 「생활騷音」 형사處罰

罰金 2백만원·징역 6월이하

環境廳, 규제기준마련 계몽거쳐 9월부터

이웃사람들을 괴롭히는 확성기소리나 공장소음등 생활소음이 형사처벌대상이돼 벌금과함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게됐다.

정부는 14일 확성기를 포함한 옥외음향발생기 교통기관시설 공장이나 사업장의공사소음등 각종생활소음이 일상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뿐아니라 갈수록 사회문제화하자 이같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마련, 오는6월에 고시하고 3개월동안 계몽을거쳐 9월부터는 강력한처벌과 함께 단속에 나설방침이다.

이날 환경청이 마련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의하면 앞으로 주거지역에서 야간에55데시벨이상의 소음을내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줄경우 2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6월이하의 징역에처하는등 벌칙을 가함으로써 소음원(騷音源)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소음도는 조용한 사무실이 50데시벨 전화통화가 힘든정도가 60데시벨에서 70데시벨이 넘으면 심리적으로 「섬이나는상태」를 빚게된다.

이같은 규제기준은 환경보전법과 그시행령에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가능케된것인데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과 병원 학교등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확성기소음▲공장, 사업장의 작업소음▲심야의 계속 또는 반복적 소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 옥내에설치된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에 발산되거나 학교 병원등의 주변에서 상업선전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카바레, 바, 다방, 영화관등에서 음향기기나 악기, 사람의 고성등으로 정온(靜穩)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함께 시간대별로도 차등을두어 하오8시부터 다음날 상오6시사이의 저녁과 야간에는 소음허용치를 더욱 낮춰 저녁은 60데시벨, 야간은 55데시벨이하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환경청은 지난80년 11월부터 주택가생활소음 저감을위한대책을수립, 실시하는한편 81년2월부터는 한국기독교대책협의회의 건의에따라 종교기관의 확성기 사용을요일 시간대별로 자율적으로 규제토록하는등 생활소음저감 행정을추진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인식부족 구체적기준미비등으로 실효를거두지못해 이번에 규제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한것이라고 환경청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60~65데시벨로 日本의43~57데시벨과 심한차이가 날뿐아니라 ISO(국제표준기구)의권고치인55데시벨을 훨씬웃돌고있는것으로 측정됐다.

또 환경청이 지난80년 조사한 전국의 주요생활소음발생원은 옥외음향기 4만6천여개를 비롯, 모두 5만5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발생원이 전국에 산재해있어 80~82년 3년동안 환경청에 접수된 민원 9백48건중 소음이 20%인 1백90건, 그중 62%인 1백17건이 생활소음 피해진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외국에서는 日本의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생활소음을 규제하고 있는데 東京은 구역을 지정, 밤11시30분부터 다음날 상오6시까지 영업이나 작업행위를 금지하고있으며 獨逸에서는 피아노도 특별한 허가가 없는한 하오1시~3시, 밤10시~다음날 상오6시사이에는 사용하지 못하게하고있는 실정이다.【任喆淳 기자】

◇"이 감격 北韓동포에" 울고 또 울었다. 李雄平씨는 귀순선배 사이에 앉아 줄곧 눈물을 닦았다. 뜨거운 환영에 감격해 울었고 두고온 가족을 생각해 또 울었을 것이다.

「自由의 눈물」 한없이

李雄平씨환영회 선물승용차 직접몰고 入場

빗줄기는 차가왔지만 1백여만 서울시민이 李雄平씨를 맞는 태도는 뜨겁고 따뜻한 것이었고 李씨가 답례로 내놓은것은 주밈없이 흐르는뜨거운 눈물이었다.

李雄平용사의귀순환영및 북괴남침책동분쇄 궐기대회가 열린 汝矣島광장에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가운데 이른아침부터 학생 시민 직장인등이 한손엔우산을, 한손엔 북괴규탄피킷을 들고 입장, 상오9시30분께는 광장이 인파로 차버렸다.

감색싱글에 남색물방울무늬의 넥타이를맨 李씨는 환영회개회직전 현대자동차로부터 선물로받은 은회색마크Ⅴ자가용을 손수몰고와 단상앞에서 내렸고 탤런트李鏡珍양으로부터 꽃다발을받고 미소를지었다.

그러나 李씨는 단상에올라 끝없이 늘어선 환영 인파를 보는순간 눈물을 글썽이더니 북에두고온 가족얘기를 할때는 눈물을 줄줄흘렸고 환영식이 끝날때까지 자주 손수건을 사용했다.

李씨는 이날 단상연설에서 『북조선비행사들이 자가용을 직접몰고다니는것은 꿈에도 상상못하는 일인데 이번에 한달간 운전연습을하고승용차를몰고 다닐수있게됐다. 과연이렇게해도괜찮은지지금도어리둥절하다』고말했다.

그는 식장에 도착, 차에서 내릴때 운전연습은 하곤있지만 서울거리에 너무차가많아 차를몰고다닐지 모르겠다』고 뿌듯한표정을 지었다.

李雄平씨가 이날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번호는 540928-164815로 주소는 永登浦區新吉洞12××로 주민등록증을 받는순간 李씨는 감회에젖은 표정이었고 본부석앞 환영인파중에서는 『서울시민·이웅평』이란 구호가 나오기도했다.

李씨가 이날받은 보상금과 보로금은 정확히 알수없으나 10억원대가 넘을것이라는 추측이고 이외에도 이날 각계로부터 자동차·컬러TV·냉장고·VTR·에어컨·세탁기·가스레인지등을 선물로 받았다.

40代2명 病院직원 가장 産母퇴원금등 훔쳐

13일 하오5시께 서울冠岳區新林8洞543의18 남부병원 302호실에 40대남자 두명이 이병원 검사실장과 조수를 가장, 산모 黃仁淑씨(26·서울冠岳區新林8洞1657의2)의 지갑속에 든 퇴원비 20만원과 65만원이 예금된 저금통장을 훔쳐달아났다.

黃씨에의하면 이날 시어머니 崔明順씨(65)와함께 퇴원준비를 하고있는데 범인들이 들어와 『병원 검사실장인데 퇴원하기전에 최종소변검사를 해야하니 화장실에가서 소변을 받아오라』며 플래스틱컵을 건네주어 시어머니 崔씨의 부축을받고 화장실에 다녀와보니 이불밑에 넣어두었던 지갑속의 현금등이 없어졌다는것.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軍閥·人脈을 캔다

趙治勳 불계승 十段位 2승2패

【東京=聯】趙治勳名人·本因坊·棋聖·十段은 13일밤 十段位방어전4局에서불계승을 거두어2승2패를기록했다.

날씨때문에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해 당초일정을 하루 늦춰 이날아침 9시부터 일본 에히메(愛媛)縣 마쓰야마(松山)市에서 벌어진 제21기 十段位결정 5번승부(産經新聞주최) 4局은 밤10시21분 1백78手만에 白을 쥔 趙十段位가 도전자 가또·마사오(加藤正夫)를 불계승으로 눌렀다.

남은시간은 6시간 가운데 趙十段位가 1分, 가또가 31分이었다.

학교서 「政府米 소비교육」

文教部시달 학생 행사動員 억제토록

문교부는 14일 정부미소비교육을 철저히실시하라고 각급학교에 시달했다.

이날하오 李奎浩장관주재로 서울남서울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같은방침을시달한 문교부는 지금까지소비자들이 일반미만을 선호하는 경향이짙어 일반미값을 올리고 따라서 전체물가의안정을 저해해왔다고 지적, 학생들을 통한 정부미 먹기운동을펴 정부미가 효과적으로 소비되도록 이같은 교육을실시하라고 시달했다.

문교부는 또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외의 모든 행사는 토요일하오나 방학을 이용해 실시하도록하며 각종행사에 학생들이 동원되지않도록 최대한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사립학교가 개인의 입장이나 감정에 따라 교원인사를 마음대로해 교권을침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학급감축등으로 교원이 남아돌때 부근의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 특별채용되도록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교부는 또 학교교육을통해 범국민무궁화심고 가꾸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고 강조, 학생들이 각가정에서 무궁화한그루이상 심기등의 운동을펴 무궁화교육과함께 애국심을 고취시키라고 당부했다.

올해도「한국版모세의 기적」

珍島앞바다 오늘부터 5回

【珍島】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올해도 어김없이일어난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기도하는 珍島바다갈이는 15일하오 6시부터 40분간, 16일하오 6시30분부터 50분간등 두차례와 오는 5월14일 하오5시30분부터 40분간, 15일하오 6시부터 1시간, 16일하오 6시50분부터 50분간 3차례등 모두 5차례에걸쳐 장관이펼쳐진다.

1년중 음력3월 초하루를 전후하여 매년 계속되고있는 바다갈이가 시작되면 전남珍島郡古郡面回洞里와 義新面 茅島里 사이의 수심4~5m의 바다가 갈라지며 약 2.8㎞의 바다바닥이 드러나 두섬사이에는 너비10~20m의 길이 생겨 두섬이 하나로 변한다.【聯】

朝鮮3대왕 太宗「王志」발견

전북 鎭安서…공신成石璘에 써준것

【全州】朝鮮朝 3대왕 太宗이 즉위2년인 1402년 당시 공신인 成石璘(1338~1423)에게 친필로 써준 王志 1장이 14일 전북鎭安郡銅鄕面 大良里 양지마을에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朝鮮朝 王志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王志는 太宗 李芳遠이 골육상쟁에 회의를 느끼고 고향인 咸興으로 은거한 太祖 李成桂를 漢陽으로 모셔온 공신, 成石璘에게 그공을 찬양하여 써준것으로 세로32㎝ 가로61㎝의 순 한지에 53자가 초서로 씌여져있다.【聯】

原油유출 被害보상 1차3억 水協예치

【麗水】속보=호남 탱커원유유출피해 보상금중 일부인 3억원을 우선 지급 받기로한 전남 麗水市와 麗川지구 출장소는 15일 이 보상금을 받은후 麗水수협에 예치하고 오는 25일 영국 P·I 보험 관계자와 호남 탱커및 해당 피해 시군과 피해어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협의를 거쳐 보상액이 확정된후 나머지 분까지 받아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키로했다.【聯】

5行뉴스

◆示威대학생 抗訴審서減刑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安又萬부장판사)는 14일 서울女大 曺銀娥양(23·영문과4년)등 2명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曺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姜桃香양(24·교육심리학과4년)에게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1년을 유지했다.

曺양등은 지난해10월18일 교내 잔디밭에서 반정부유인물 5백여장을뿌린뒤 「학보검열폐지」「서클활동자유보장」등구호를외치며 시위를주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오늘 1시부터 民防衛훈련　내무부는 4월중 민방위의 날 훈련을 15일하오1시부터 30분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훈련은 전국2백39개 읍이상의 도시에서는 민방공훈련을, 간첩침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주민신고훈련을 벌이며 산간지역에서는 산불진화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洛東江하구 乙淑島 4백70만坪 철새保護地 일부해제

洛東江하구의 철새낙원 乙淑島일대가 내주부터 수난을 받게될것같다. 문화공보부는 13일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에 건설될 하구언(河口堰)공사를 위해 문화재보호지역 일부를 해제하는한편 공사에 필요한 지역의 현상변경을허가했다.

문화공보부는 乙淑島를 가로질러 하구언공사를 계획하고있는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문화재위원회의 해제신청을 받고 문화재위원회를 소집, 격론을 벌인끝에 원형변경을 극소화하라는 조건을 붙여 7천5백만평 가운데 乙淑島일부인 4백10만평(5%)을 현상변경하고 하구언공사의 동쪽지역 60만평(0.7%)을 문화재보호지역에서 해제키로 한것이다.

산업기지개발공사는 釜山 馬山 蔚山 昌原 鎭海등지의 생활·공업용수와金海평야 관개용수를 홍수 피해없이 공급하기위해 부산西區下端洞에서 北區鳴旨洞까지 2.4㎞를 잇는 하구언을 축조할 계획을 세웠으나 동양의 손꼽히는 철새낙원을 살려야한다는 반대에 부딪쳐 공사에 착수하지못했었다.

문공부는 부산시민과 경남일원주민들의 편익을위해 불가피한 사업인데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할수있는 排水管路에 필요한 지역만 해제해주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하구언공사규모 …에따른 천연기념물 …생태변경계 관해 환경·생태학자들은 이 공사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잇점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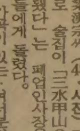
경희大 尹茂夫교수는 아산만 방조제공사로 많은경제적인 잇점을 얻었으나 갯장어·민물장어등 민물어족의 개체수 격감으로인하여 이를 먹이로 삼고있던 도요새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있는 예를 들어 공사는 환경에 미치는 훼손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신고 너나없고 간첩자수 밤낮없다
간첩신고 자수표어

「三水甲山」

서울茶洞 歌曲전문술집 梁漢宗씨

술景氣 쇠퇴…13년만에 "廢業" 인사장



「三水甲山을 갈망정 ○○을 안할수없다」는 말을 흔히 한다. 「三水와 甲山」은 함경도의 오지로 그 옛날 귀향살이의 땅. 그만큼 외진곳이지만 한국적 노스탤지어가 짙들어있는듯 해 묘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서울 茶洞의 주점 「山水甲山」의 주인 梁漢宗씨(48·사진)가 「三水甲山으로 가게됐다」는 폐업인사장을 단골손님들에게 돌렸다. 「건전한 가곡이 있는·여러분의 안식처가 경영난의 심화로 부득이 4월30일자로 문을 닫게됐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이 인사장에는 고객들의 격려와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게 된 梁씨의 아픔이 행간마다 서려있다.

개업할땐 인사장을 돌려도 폐업할때 梁씨처럼 인사장을 돌리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다.

우리가곡의 전당인 술집 「山水甲山」이 문을 연것은 70년11월17일. 梁씨는 「마음의 고향과 우리의 영혼찾는다」는 뜻에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 가지지만 「山水甲山」이라는 색다른 이름을 내걸었다.

13년간 이어온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梁씨는 고집스레 우리 가곡만을 고집했다. 梁씨의 긍지대로 「山水甲山」엔 의사 교수 문인 언론인등 인텔리주당들이 모여들었고 梁씨는 이들과 주인-손님의 관계를 넘는 우정을 나눠왔다.

그러나 武橋洞·茶洞일대의 술집경기가 永東으로 옮겨감에따라 山水甲山은 경영난에 부딪쳤다. 게다가 주위에 극장식 비어홀이 등장, 많지도 않은 고객을 하나둘 빼앗아가 이제는 어쩔수가 없다.

오는 30일 「山水甲山」은 고별파티를 마련한다. 이날을위해 7명남은 여종업원들은 『그냥 오십시오. 초상집에 초대하는 기분입니다만 옛날 「그분」들로 많이들 오십시오. 술값 걱정말고 마음껏…』이란 합창을 연습하고 있다.

梁씨는 지금 『외국엔 대를 이어오는 전통의 술집이 많다는데』를 되뇌인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또하나의 山水甲山을 차리겠다고 다짐한다. 『三水甲山에 간한이 있더라도…』【薛熙濬기자】

한국요리의 전통을 이어
한국적인 멋을 겸비한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
자신있는 요리솜씨!

*최고의 진미 *저렴한 음식값

년말파티 예약 접수중,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531-0277

영업·오전10시~새벽 1시

한국관

땅끝에서 오다 <32>

金成一 作 / 宋龍 畵

안개속에서 온 密書⑤

사무실에 들어서자 마자 한 직원이 동경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전했다. 일본어는 즉시 수화기를 들고 동경을 부탁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동경이 나왔다. 우에다·구미꼬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아, 우에다상. 아직도 퇴근 안했어?』

『퇴근이 뭐예요. 지사장님하 지금 모두 긴장해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걸요』

『무슨 소식을?』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하야시(林)상이 무사히 도착하셨는가 하는 소식이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도 한일이었던 것이다.

『전화를 부탁했다며?』

『네, 지사장님 바꿔드리기전에 한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하야시(林)상 앞으로 텔렉스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좀...』

『어떤 내용인데?』

『그것이……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수가 없어요. 보낸곳도 텔렉스넘버로 보아서는 프랑스인것 같은데 어디인지 처음보는 넘버예요』

『알았어. 지금 당장 본사 텔렉스실로 릴레이시켜 줘. 그리고 지사장님 좀...』

『한가지 잊으신것 없으세요?』

『잊은 것?』

『잊어서는 안될 것 말씀이에요. 스미에. 스미에는 오늘저녁 저하고 만나기로 되어있어요. 퇴근이 늦은 바람에 지금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뭐 전할 말씀 없으세요?』

『어...잘 도착했다고 전해 줘. 그리고 지사장을...』

그러나 구미꼬는 한마디 더붙이는 일을 잊지않았다.

『오실때 선물사오신다는거 잊지 마세요. 일본 여자들은 선물받는것을 좋아하거든요』

이어서 지사장이 전화를 받았다. 준호는 무사히 도착한 것을 보고하고, 리비아의 트리폴리까지 출장이 연장된 것을 전했다. 이미 지사장은 프로젝트 본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 동경에서도 아직 이 세원의 소식은 캐치된 것이 없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프로젝트 본부장실 쪽으로 수트케이스를 든채 걸어갔다.

『그건 여기 놓고 가시지요』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바로 여기 들어 있으니까요』

땅끝에서 오다 <33>

金成一 作

안개속에서 온 密書⑥

본부장은 웃음을 띤 얼굴로 준호에게 수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 종일 서류처리의 사전공작때문에 지친것인지 눈가에는 피로의 그늘이 감돌고있었다.

『그래 나리따공항에서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서?』

『네. 너무 창황중에 생긴 일이라...』

『어쨌든 평소에 태권도를 익혀두었었다니 정말 다행이었군. 그래서 격사격사 이번 트리폴리까지도 자네에게 맡기기로 한거야』

『어쨌다 위급하니까 버티어본것이지 무술을 써먹을 정도로 프로는 아닙니다』

그는 필요이상으로 떠벌려서 동료들에게 무용담 들려준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아니야. 칼을 든 테러리스트를 다운시켰다는것은 확실히 놀라운 실력이야』

『너무 당황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된것인지 도착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략 동경지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이세원부장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직 단서가 없다고?』

『네. 파리지사의 세직원이 분명히 디파처 게이트로 나가는것을 확인했다니까 그가 사라진곳은 틀림없이 디파처 게이트 이후입니다. 탑승예정이었던 JL404는 암스테르담과 앵커리지 두군데 기착하기때문에 암스테르담 지사에도 알아보았읍니다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읍니다. 나중에 JL404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을 마침 찾을수가 있어서 알아보았더니, 한사람이 출발시간까지 탑승하지를 않아서 온통 공항내에 아나운스를 한동 법석을 떨었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래, 결국은 안태운채로 출발했단말이지?』

『네, 그렇읍니다』

『그다음 비행기도 안탔고?』

『네, 두시간후에 출발하는 JL426이 있었읍니다만 거기에도 이부장은 타고있지를 않았읍니다』

『객류를 범였다는 그 사내는 어떤 인상이었어?』

『네, 유창한 일본말을 쓰고 있었읍니다. 약간 목소리가 쉰 것 같았고...』

본부장은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을 굴리는 듯 싶더니 이내 다시 웃음을 띠며 말했다.

『어쨌든 수고 많았어. 자, 그 서류좀 볼까...?』

준호는 수트케이스에서 서류봉투를 꺼냈다.

『서류를 수트케이스에 넣다니... 새로운 수법이로군』

『이 세원 부장의 수법입니다. 그가 서류를 수트케이스에 넣지 않았다면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원 부장은 신변의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다. 서류를 수트케이스에 넣은것은 확실히 이세원의 치밀한 배려였다. 그것도 양복 갈피에 숨겨져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세원부장은 어떻게해서 그신변의 위험을 미리알수 있었던것인가.

본부장은 서류를꺼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으로보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것인지 짐작을 할수있을정도였다.

『서류는 어떻게 한든 모레까지는 완결지을 테니까, 임대리는 일찍들어가 좀쉬는게 좋을꺼야. 모레 또긴 여행을 계속해야 하니까』

『감사합니다』

「꼴찌」가 앞서간다

올시즌 프로野球 9일을 보낸 三美와 OB

굴욕 씻으려는 意志로 上昇勢에 三美
어제의 「투수王國」이 4連敗 쓴맛 OB

83년 프로야구 10일째. 초반 9일간의 레이스서 82년 꼴찌팀 三美슈퍼스타즈가 수위로, 元年 우승팀 OB베어스가 5위로 엇갈렸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아무도 예상못했던 놀라운 변화다.

9일간의 짧은 일정에 남겨진 기록들이 두팀 내부에 일어나고있는 변화들을 대변해주고 있다.

『연승의 원동력은 구단의 성원과 선수들의 정신력입니다. 재일동포 張明夫와 李英求가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어요』

三美코칭·스태프의 말은 지난해 우승직후 「구단과 선수들의 인화단결 덕분」이라던 OB코칭·스태프의 우승소감을 연상케한다.

三美의 선전은 바로 三美구단이 83년시즌을 준비하며 보여준 새로운 의지의 결실로 풀이된다. 슈퍼스타즈의 야구활동이 三美의 기업이미지와는 무관하다는듯 무관심속에 三美슈퍼스타즈는 지난해 OB에게 16전전패의 치욕을 당하며 15승65패로 최하위를 마크했었다.

참혹한 첫시즌을보낸후 三美는 「脫최하위」를 부르짖으며 대대적인 팀재정비에나 섰다. 코칭·스태프를 개편하고 분별없이 뽑은 27명의 선수중 11명을 추방하고 張明夫·任昊均·金相基·柳鍾天으로 마운드를, 李英求·金鎭雨등으로 수비를 보강했다. OB나 MBC, 三星으로부터 외면당했던 鄭求普·崔洪錫·鄭丘旺·金大鎬·李喜雄등의 분투가 최하위의 굴욕을 씻으려는 팀의지와 화합, 놀라운 상승효과를 보여주고있다.

「OB는 보름달, 三美는 초승달」.

창단 첫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투자로 프로야구의선두주자로 나섰던 OB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둔화된 움직임을 감추지못하고있다. 특히 첫해 우승을 위해 혹사당한 에이스 朴哲淳의 고장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타선까지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OB에대한 설욕을다짐하며 三美는 光州그라운드 컨디션을 이유로 해태와의 거북한 2연전을 기피, 에이스 張明夫와 任昊均을 완벽한 상태로 對OB전에 투입해 통쾌한 2연승을 거두었다.

OB는 朴哲淳이 빠진후 선두를 기대했던 桂瀅鐵이 고질적인 컨트롤난조를 벗어나지 못한데다 가장 믿고있던 張浩淵과 鮮于大泳이 三星과의 2연전서 잇달아 패퇴, 三美와의 경기서는 마운드에 올려보낼 투수를 고르기 어려울만큼 궁색해졌다.

「투수왕국」을 자처하던 OB는 「투수貧國」으로 몰락, 4連敗의 쓴맛을 마실수밖에 없었다.

張明夫가 뜻밖의 고장으로 무너지고, 朴哲淳이 기적적으로 일어서지 않는한 두팀사이에 지난해같은 불균형은 일어나지 않을것 같다. 【方錫岬기자】

◇任昊均

◇張明夫

◇鮮于大泳

◇張浩淵

◇프로야구 6개팀 성적

팀	경기	승리	패전	비김	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타율	방어율
①三美	6	4	2	0	·667	28	15	5	4	·236	2·17
②MBC	9	5	4	0	·551	30	35	3	12	·279	2·56
③三星	7	3	3	1	·500	31	30	4	6	·268	2·66
③롯데	6	3	3	0	·500	34	34	3	8	·283	4·53
⑤OB	8	3	5	0	·375	40	41	5	4	·240	4·19
⑥해태	4	1	2	1	·333	12	20	1	4	·263	3·71

◇三美·OB투수 성적비교

三美	게임	승	패	구원	회수	안타	四死	삼진	자책
張明夫	3	2	1	0	29	31	10	15	6
任昊均	3	2	0	0	25·6	13	7	11	3
金相基	1	0	0	0	2	3	2	1	3
柳鍾天	1	0	1	0	1·3	2	3	0	2
OB									
鮮于大泳	2	0	1	0	4·6	11	3	5	7
張浩淵	4	2	2	0	24	21	13	3	10
黃泰煥	3	0	0	1	7	7	2	5	2
桂瀅鐵	1	0	1	0	3	5	4	2	3
朴相悅	2	1	1	0	16	19	8	4	5

한국 팀 우승

金賢俊·朴贊淑 최우수선수로

亞洲도시對抗농구

【콸라룸푸르=閔炳宅특파원】 三星電子(남)와 太平洋化學(여)이 제2회 아시아도시대항농구선수권대회 覇權을 차지했다.

三星電子는 13일벌어진 남자부결승전서 중공의 廣州팀에 65-64로 패했으나 예선에서 14점차로 이겼기때문에 골득실차우세로 우승, 82년 I회대회때 대표팀이 출전 우승한이래 2連覇했다.

太平洋化學은 여자부 결승전서 東京팀을 58-45로 여유있게 물리쳐 대회 첫패권을 잡았다.

한국의 金賢俊과 朴贊淑은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결승전

▲여자부
태평양화학 58 (26 32 / 20 25) 45 동경

▲남자부
중공광주 65 (29 36 / 32 32) 64 삼성전자

張吉山 <1716>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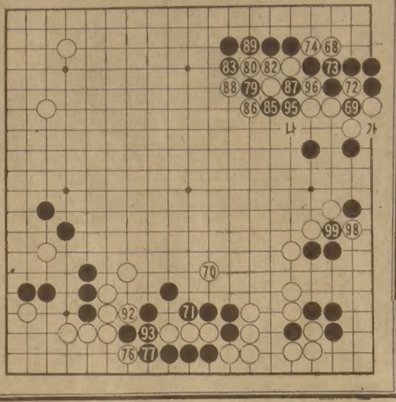
오계손은 진작부터 원향이 무업을 벌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워낙에 소메(牛山浦)와는 팔구십리 길이라 섬뜩 발길이 가지 않았던 터였다. 운율 조산들에도 동당이 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은근히 장길산이나 구월산 녹림당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도 그럴밖에 구월산 인근 사읍은 물론이오 멀리는 재령 서흥 신계 평산에서까지 저들의 활빈행이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모두 그들 편이었던 것이다. 누구나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봉산 근처에서 은거하고 있음은 대개들 아는 눈치였다. 오계손이 가 마바로 나라를 뒤집자는 말은 못꺼냈지만 그저 벼슬아치들의 횡포를 막기위하여 풍류계(風流契)를 짜서 서로 굿이나 동제를 지낼적에 협조하고 관의 침탈이 있으면 미리 방비하자 하였더니 우선은 무당 박수들이 너도 나도 들었고 이어서 각 촌락의 동제 말는 이정이나 집사 말는 이들도 서로 들었다. 그 짜임새는 굿패와 광대패들이 밑받침이 되었으니 연결은 그물코와 같고 내밀하기가 참빗 틈새와도 같았다. 동제를 지내려면 적어도 그 지역에 사는 박수 무당은 거의 동원 되어야 하고 서로 다른 구역으로 조력하러 넘나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조정을 모두 오계손이 가하던것이다. 그는 굿패의 총대로뿐만아니라 한 풍악잡이 잡이로서도 그의 음률과 가락을 따를 자가 없어 기능이 모자라는 조무(助巫)들은 그에게서 며칠씩 밤새워 배우고 섭무가 되곤 하였다. 당굿이나 풍어제나 산제나 하여간 어느 고장이든 제 바닥에 걸맞는 동제를 지내려하여도 우선은 신천 소메의 박수 총대 오계손을찾아와 논의를하게끔 되었었다. 그러면 오계손은 대강의 굿 절차를 협의하고나서 그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풍류계의 무당 잡이들에게 통기하고 그는 굿하기 며칠전에 가서 제 비용이나 사례를 따지고나서 그를 균등히 나누어 주고는 하였다. 오바수가 들어서면 공연히 행하를 가지고 티격태격 하거나 무당 잡이 꼴꾼들에게까지 혜택이 골고루돌아가게 되므로 그는 눈코 뜰새가 없이 불려다녔다. 어떤때에는 말썽을 조정해달라고 그를 부르는 촌락이 있을 정도였다. 그의 별호는 소메큰박수였다. 오계손은 아직까지는 그와 절친하고 가까운 무당 박수나 여염의 양민 동무들께 속마음을 털어놓지는않았다. 그러나 일단 때가무르익으면 처음에는 셋 중 하나는 나설 것이고 오히려 섰사될듯 싶어지면 그열배로 늘어나리라고 믿고있었다. 오계손은자신들의 계를 위한큰굿을 구월산에서 열리라 작정하고 있었고 이번에 원향이의 단풍맞이 굿을 열어줄 작정이었다. 무당이 몸주를 받아 내림굿을 하고나면 그 영험의 성장을 위하여 한 해에 꽃맞이와 단풍맞이 두 차례의 굿판을 열게 되는데, 판에서의 새 무당의 놀이 실력을 보아 그 영력의 성장도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오계손이 원향을 해서의 큰 만신으로 올리려는데에는 까닭이 있었으니, 그가 길산의 양모 재인 말큰 만신 안씨의 신딸이며 장차 미륵도의 종사 스님인 여환과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오계손은 여느 때처럼 맨손에 봇짐도 없이 중치막에 밭갓 쓴 차림으로 집에서 나왔다. 가는데마다 계원 집이니 숙식은 한두 끼 걱정이 없었다. 그리 바쁜 길도 아니라 까막내 길산네 누이집서 하루 자고 이튿날 구구월(口九月)의 사선골로 올라잣다.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14局第5譜 68~100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 〈1勝2敗〉
黑(7段) 盧永夏 〈2勝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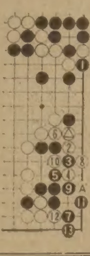


徐6단은 몸을 잔뜩 웅크렸다가 숨을 몰아쉬면서 白68을 야무지게 찍어놓았다. 여기서 단번에 결판을 내려는 기세다. 말할것도없이 패를 지면 끝장이 나는 것이다.

한편 盧7단도 패는 절대로 지지않을 기세다. 그렇지않고 좀더 냉정했더라면 白70에 대해 응수를 하지않고 黑「가」로 해소해버렸을지 모른다. 비록 아래쪽 黑3점은 양보하더라도 패를이긴 뒷가가서 黑이 우세하다는 중론인것이다.

좌우간 오기와 끈기가 맞서는바람에 패는 계속되고 문제는 확대되었다.

커가는 패 싸움



白86은 黑87、89의 회돌이를 각오한 반격。白98이 내친걸음。그러나 국후평에서는 이수로 白「나」에 몰아 패를 양보한는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한다。왜냐면 黑이99에 받아주지않고 참고도의 黑1로 해소했더라면 白의 패배는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白은 2이하로 공격하겠지만 黑13까지로 「A」의곳의 패를보는것이 고작。우삼귀 黑의 소득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따라서 黑99는 패한다면 치명적실수가 되지 모른다。

…69。100…72。90…79。75、78、81、84、87、91、94、97 【一凡】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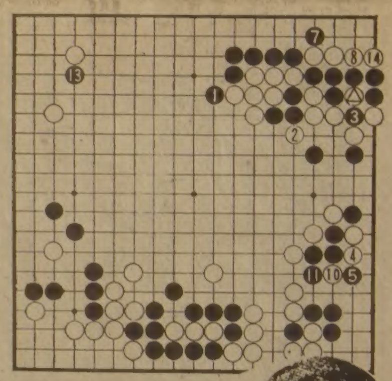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일보 533·2361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14局第6譜 101~114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 〈1勝2敗〉
黑(7段) 盧永夏 〈2勝2敗〉



대국중 곧잘 가벼운 농담을 웃기고 자신도 웃으며 낙천적인면을 보이는 盧7단도 이바둑에서는 시종 함구무언, 긴장된 표정을 풀지못하고 있다. 하기야 徐6단보다 5살위인 盧7단을 선배로서 깍듯이 대우하고 또 원래가 과묵한 성격이기때문에 자연 그렇게 되는 모양이다. 게다가 판국은 추호의 방심도 허락되지않는다.

名人戰만 따지면 이들은 지금까지 2국을 대결하여 徐6단이 모두 이기고 있다. 觀戰子의 속데없는 억측이지만, 한번도 이기지못한 盧7단은 마음 한구석에 一鍼을 따갑게 가하고싶은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게 아닐까. 이런데서 현재 초비상에 걸리게된 원인을찾아볼만한것이다.

白, 패를 이기다

전보 白100、본보 스표로된 패는 黑이 누차에걸친 판단착오로 인하여 갈수록 고전이며 사전도 일로 확대되고있다.

黑1로 젖히고 白2때 3으로 패를 따냈지만 우변에서 白4、10등 절대적인 패감이 연신 黑의폐부를 찌른다. 이것은 비단 패감으로 이용당했을뿐아니라 黑11까지로된 우변黑도 결코 보기좋은 모습은 아니다.

白12로 스자리에 따내면서 단패。여기까지 10여수에 1시간15분。거지반 黑이 소비한 시간이다。결국 黑13으로 생패를 써서 白14로 패는 해소되었는데。6、9、12…패。【一凡】

한·영복음모임

한국에서 6년동안 초종파 선교사로 봉사하신 D. OLSTAD 선교사께서 한인교포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복음모임을 인도하시게 되었사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연보는 걷지 않습니다)

일시: 3월28일부터 4월25일까지 매 월요일 오후8시
장소: DAVID AND MARRY THOMSON 고등학교 Room 112
2740 LAWRENCE AVE. E.(MIDLAND & BRIMLEY RD.) SCARBORO.
연락처: 465-9758

비즈네스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온타리오의 젊은이들은 일할 준비가 되어있읍니다。

이번 여름에는 당신 비즈네스의 여분의 일에 젊은이를 고용하십시요. 온타리오 젊은이들은 일할 준비가 되어있읍니다. 온타리오에는 당신이 지불하는 임금을 도울 것 입니다.

만약 당신이 금년여름 15세부터 20세까지의 젊은층을 위한 새로운 일을 만든다면, 온타리오는 시간당 1.25불, 주에 최고 50불까지 각 월급에 대해 지불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당신이 고용하든 4,000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OYEP은 일반 프로그람입니다. 기금이 제한되어 있어, 가능한한 빨리 신청하십시요.

1983년 6월10일까지 신청서들을 접수하거나, 기금이 할당되기 전까지 신청하십시요.

완전한 안내서를 원하거나, 신청서, 또는 내용을 아시고자 하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요.

OYEP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Subsidies Branch
Queen's Park
Toronto, Ontario
M7A 2R8

이것이 온타리오 청년고용 프로그램—OYEP

당신이 OYEP에 다음과 같으면 자격이 있읍니다.

▲당신이 능동적으로 온타리오내에서 사업이나, 농장을 적어도 1983년4월11일까지 1년이상이 되었다면.
▲당신이 8주부터 연속적으로 20주까지 1주에 25시간~40시간의 관리직일을 준비했다면.
▲4월11일부터 10월16일까지 정상적인 일외에, 새로운 일을 만들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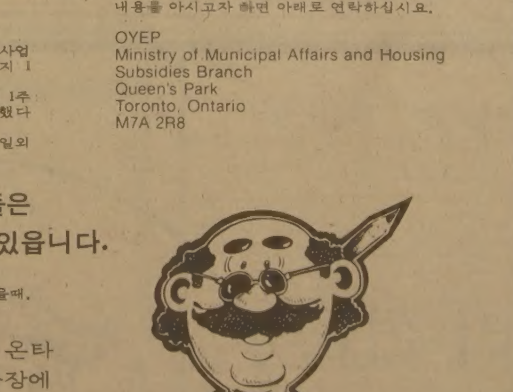
다음과 같으면 고용인들은 OYEP조건에 자격이 있읍니다.

▲년령이 15세부터 24세까지거나,
▲온타리오에 거주하여 일을 할 수 있을때.
▲고용주와 관련이 없을때.

작년에는 OYEP에서 온타리오의 비즈네스와 농장에 5만명이상의 젊은이들을 고용하여 도왔읍니다.

주민을 돕고 일하는 온타리오 정부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Ontario
Claude Bennett, Minister
William Davis, Premier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필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10 6개월 : $55. 년 : $110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APT……………
도시……………주……………
우편번호 ☐☐☐☐☐☐ 전화……………
크레딧·카드넘버 : VISA……………매스터카드……………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秘史 1951년 韓国 〈3〉

32년만에 공개된 美國務省 비밀文書 全貌

“統韓보다 世界정세가 중요 蘇서 極東노려參戰땐 撤收”

2월들어 유엔군의 반격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따라서 논의의 초점도 「철수」에서 「38선」으로 옮겨갔다。

「2월초까지 미국은 한국전참전맹방들에게 한국전은 북위38도부근에서 안정을 찾고있으며 휴전후 중공측과 협상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존・무초 주한미국대사는 전쟁을소강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은 긴요하나 38선에 전선을 멈출경우 한국인들이 격렬한 반발을 보일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유엔군이 서울과 平壤사이에 방어선을 구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3월15일 駐美한국대사관 韓豹頊1등서기관은 美국무성極東담당 차관보 딘・러스크와 이문제에 관해 대화를 가졌다。韓豹頊은 유엔군이 38線에서 진격을 멈춘다면 6・25발발당시와 흡사한 상황이 再現될것이며 한국민의 士氣에 치명적인 손실과함께 유엔에 대해 실망을 하게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러스크는 한국정부와 한국민의 통일과 자유의 욕망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러스크는 한국민들의 이같은 욕구는 세계안보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미국및 유엔의 입장에서 볼때 단순한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한국이 소련및 中共과 접경하는 한 지속적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한국이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공과 소련을 패망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한국의 존립마저 위협스럽게 하는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날 맥아더장군은 UP통신의 류・베일리사장과의 電文인터뷰를 통해 이문제에 대한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맥아더장군은 38선을 지키기위해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하냐는 베일리사장의 질문에대해『한국은 지형상으로 靜態전투가 어려우며 38선부근은 특히 그렇다。재래식방어체제를 갖추기위해서는 상당수준의 병력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병력만 있다면 중공군을 압록강밖으로 몰아내 압록강을 방어선으로 구축, 한국의 통일을 달성할수있을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여건하에서도 군사적인 不利를 줄이면서 작전수행을 계속할수있는데 그렇게하기위해선 병력을 유동적으로 투입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38선이북에로의 진격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같은 맥아더의 기자회견내용에대해 트루먼대통령은 코멘트를 피한채 38선이북에로의 진격은 야전사령관이 결정할 전술상의 문제라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같은날 李承晩대통령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하면 한국군50만병력이 압록강에서 공산세력을 막을것이며 유엔군은 필요하다면 中共에까지 폭격을 확대해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3월22일 林炳稷외무장관이 러스크를 만나 中共내 기지에대한 폭격문제를 타진했다。러스크는 소련이 極東에 막강한 공군력을 배치하고있다는점을 지적한후 만약 유엔군이 中共을 폭격할경우 소련이 개입할것이며 그것은 세계대전을 유발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되면 한국에 와있는 유엔군은 다른 전투지역으로 철수해야 할것이며 그것은 한국에 이익될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林장관은 이에대해 소련은 그들의 승리가 확실할 경우에만 전면전을 일으킬것이라는 한국정부의 판단이 억지가 아님을 내세웠지만 러스크는 당초 예상을 못했던 中共의 개입을 예로들면서 한국정부의 요청을 피해나갔다。

4월5일 오마・브래들리美합참의장이 마셜美국방장관에게 보낸「한국에서의 군사행동」에 관한 각서는 미국이 소련의 개입을 극히 두려워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각서는 만약 소련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유엔군을 즉각 한국에서빼내 다른戰線에 배치할것과 소련이 유엔군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의용군을 파병할 경우에도 유엔군을 철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있다。한국문제가 타결될때까지 소련이전면전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에도 두가지 상황을 상정하고있다。

소련의 목표가 서유럽이라면 유엔군을 계속 한국에 주둔시키는것은 소련에 이익이며 소련의 목표가 極東이라면 유엔군을 한국에서 빼내는 것이 소련에 이익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이 각서는 또『한반도내에 공산세력을 남겨놓은채 휴전이 성립된다면 공산세력에 크게 유리하다。이같은휴전은 유엔측으로는 크게 불리한 것이다。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측의 군사자원을 낭비케하는 것이며 한국내에 유엔군병력을 유지시켜야하는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문제는 군사행동만으로는 미국에 만족스럽게 해결될수없다는것이 이 각서의 인식이다。『한국사태는 국제적긴장의 징후이기때문에 한국에 국한된 정치・군사행동만으로서도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나올수없다。국제적인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한 미국으로서는 만족할 해결책을 기대할수없다』고 이 각서는 밝히고 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미군은 미국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때까지 한국에서 현재의 군사행동을 계속해야하지만 그것은 소련, 臺灣, 中共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입장을 위태롭게 하지않는 범위내에서라는 단서를 붙이고있다。

이각서는 또 유엔군의 짐을 넘겨받도록 한국군을 신속히 양성해야 한다는 점, 對中共해상및공중작전에 대비, 즉각적인 준비가 있어야한다는점, 中共을 공격하게될 경우 우방국들에게 미국의 對한반도및極東정책의 목표를 확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는점 등을 지적하고있다。

이같은 合參의 가정에 대해 알렉시스・존슨 美국무성 東北亞담당국장은 러스크에게 의문을 제기했다。그것은 소련의 목표가 極東일 경우 유엔군의 한국철수는 소련에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에 유엔군을 잔존시키는 휴전방법이 어째서 미국에 불리하냐는 것이었다。

擴戰이냐 休戰이냐

이무렵 (4월1일) 美하원 조셉・마틴의원 (共・매사추세츠)은 의회에서 맥아더장군이 그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맥아더장군은 이 서한에서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음모자들이 세계정복을 위해 날뛰고있다는 사실을 일부에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뒤 만약 유엔군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패배할 경우 유럽의패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유럽에서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편지는 한국전에대한 미국과 유엔의 정책을 명백히 비난하는 내용이었으며 따라서 트루먼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그의 외교및 군사참모들과 맥아더의 해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4월9일 트루먼대통령은 애치슨국무、마셜국방장관및 해리먼외교고문、브래들리합참의장의 한결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맥아더의 해임을 결정,후임으로 매튜・리지웨이중장을 임명했다。

18일상오 워싱턴에서는 국무성과 合參합동회의가 열리고 있었다。이날 회의에서는 휴전협상가능성등 한국문제들이 주로 논의됐었다。휴전협상황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러스크차관은『맥아더해임이 평화적해결의 길을열어주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위험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외국의 동맹국들에대해 그러한 분석을 하는데 신중해줄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령관의 교체는 미국의 중공접근을 자극했다。유엔중재위원회는 중공과 접촉,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한편에서는 소련이 한국전에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위해 소련과의 접촉노력을 계속했다。

브래들리장군은 이회의에서 리지웨이 사령관에대해 새로운 작전명령을 내려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브래들리 장군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중공군이 철수해야하며 만약 유엔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전쟁을 끝내려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지웨이장군에게 정치적인 지침도 내려주어야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예컨대 정치적 견지에서 그간 북진을 할것같으면 어느선까지 북진을 해야할것인가란등의 지침이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는 것。콜린즈장군은『우리는 한국의 안정을 되찾고 선거를치르며 미군이 장악하지못한 지역을 제외한채 한국정부수립을 하려하고 있다』는 점등이 리지웨이장군에게 제시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5월1일합참은 리지웨이장군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유엔군 사령관으로서의당신은 한국내의 북한과 중공군을 격퇴해야한다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이명령은 밝히고 있었다。한국내에서의 군사작전과 관련, 당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위해 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 한국내에서 공중및해상공격을 할수있다고 이명령서는 밝히고있다。合參은 그러나 滿洲나 소련영토에대한 공중 또는 해상공격,압록강수력발전소공격등 일련의 확전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권한은 부여하지않았다。

◇51년 4월11일 유엔군총사령관 이취임식을 마친뒤의 두사람。왼쪽이 해임돼 물러나는 맥아더장군이고 오른쪽이 신임 리지웨이장군。

맥아더 解任

美국무성은 51년4월11일 우방13개국의 駐美외교관들을 국무성으로 초청,한국전에관해 브리핑을했다。이날 브리핑에는 濠洲를 비롯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인도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터키 南阿聯등 13개국의 대사급외교관들이 참석했으며 미국측에선 러스크차관보가 나와 브리핑을 맡았다。

러스크는 이자리에서 연합군사령관이 맥아더에서 리지웨이로 교체되었음을 알렸다。그러나 리지웨이장군은 유엔군총사령관직외에도 極東군사령관 연합군최고사령관직을 겸임하고있었기 때문에 맥아더장군처럼 직접한국내에서 작전을 지휘할수없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연합군측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관련된 사태를 처리함에있어 한사람의 군사지도자를 갖게 된것은 매우 가치있는것이었다。

리지웨이장군이 美8軍을 지휘할수없는 상황일때는 밴・플리트장군이 지휘권을 갖게 될것으로 예상되어왔다。그런의미에서 밴・플리트장군의 8軍사령관임명은 갑작스럽게 결정된것은 아니었다。

友邦13國 외교관에 브리핑

“美정책의 變化는 전혀없다”

밴・플리트장군은 리지웨이만큼 알려지지않았으나 2차대전때 그리스에서의 군사작전을 포함, 광범한 군사경험을 쌓은 군인으로 호전적이고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있었다。

러스크는 맥아더장군의 해임결정이 매우 유감스런 것이었다고 말했다。군사지도자로서 그는 50년동안 복무했고 국민의 큰신임을 받고있었다。이처럼 훌륭한 군사지도자가 미국과 유엔에의해 부여된 책임을 수행할수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것이었다。

러스크는 極東에서 군사지도자의 교체가 아무런 정책변화를 의미하지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맥아더의 해임은 오히려 미국의 현 정책을 수행하려는 결의를 보인 것이라고역설했다。

러스크는 일본에서의 조속한 평화정착을 미국이 원하고 있다는 점과 中共정부에대한 미국의 태도나, 極東에서의 어떤위협에대해 결연히 맞서겠다는 미국의 결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러스크는 맥아더장군의 해임이 미국이 유럽지역에 정책이나 이해관계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맥아더의 해임은 곧 미국이 극동보다는 유럽에 우위를 두는 것이라고 추측하는것은 정당치못한 일이라고 강력히 말했다。러스크는『우리는 이 두지역에서 영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민들을 위한 미국내정책에관한 연설이 있을것같냐는 주스티南阿聯대사의 질문에 러스크는 미국민들은 한국정책에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증거들이 있으며 조만간 그에 관련된 연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 우리는 한국문제에관한 유엔의정책을 위태롭게하지않도록 하기위해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러스크는 대답했다。

롱캐나다대사는 한국에있어서 우리의 목표를 재차설명하는것이 매우긴급한 문제가 아닐수 없으며 낡히 유엔정책과 상충되는 면을 보인 최근의 東京성명에대한 재차성명은 매우 중요한 일로 믿고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북괴와 中共軍은 미국을 철저하게 불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물론 한국에서의 유엔의 목적에대해서도 불신하였다。맥아더의 퇴진이 한국에서의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의 벽에서 깨여나오지 못하고있다。

그는 가까운 장래에 유엔중재위원회나 기타 중재기관에의해 전쟁을 종식시키기위한 어떠한 방안이 강구될수 있겠느냐는 가능성에대해 질문했다。러스크는 이에대해 최근의 접촉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공과의 공적 또는 사적접촉에서는 큰효과를 기대할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중공군은 협상테이블에 앉기전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최소한 한차례의 공격을 감행할수도 있다고 러스크장관은 전망했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확고한 정책은 미래의 작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하느냐는 킬파라니인도대사의 질문에 러스크장관은 그것은 적의 능력, 의사및 행동과 그당시에 존재할 것으로 예견되는 군사적요인들에의해 좌우될것이라고 말했다。

“蘇 眞意를 打診하라”

秘密접촉

5월8일 유엔주재미국대표단 프랭크・P・코리건과 토머스・J・코린은 소련대표야콥・말리크와 한국전해결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말리크는 미국은 한국전해결을 원치않는 여러증거들이 있다고 말했다。코린은이를 강력히 부인했다。그는 유엔에서의 미국정책은 평화로운 조건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리고 유엔의 休戰위원회와 중재위원회에대한 미국의 지원에대해서도 언급했다。말리크는 말뿐이지 실제 이러한 것들은 미국이 한국전의 평화적해결을 원치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말리크는 두나라의 외상회담에서해서만 그것이 실현될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코린이 두외상이란 미국과 소련의 외상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말리크는 그것이 아니고 파리외상회의 같은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린이 다시 말리크에게 만약 외상회담이 열릴것같으면 소련은 한국전문제들을 의제로 제의할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는 하지않겠다고 말했다。말리크는 다만 여러중요문제들이 그러했듯이 한국전도 미・소양국의 협의와 토의에의해 해결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국전해결을위한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있는가운데 무초대사는 국무성에 한국군에 대한 몇가지 견해들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이편지는 밴・플리트駐韓미군사령관이 丁一權장군등에게 보낸 서한이었다。이편지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한국이 안고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유능한 군사지도력의 확보이다。한국군에는 이것이 결여되어있다。이는 주요부대들이 여러 전투에서 패배한 사실에 의해 실증되고있다。이것이야말로 군사분야에 있어 한국대통령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책임이 아닐수 없다。유능한 지도력을 확보할때까지는 한국군의 효과적인 전투수행을 거의 기대할수 없을 것이다。

한국군이 지도력을 확보, 능력과 가치를 발휘할때 비로소 駐韓미군과 장비의 증강이 고려돼야 할것이다』

국무성은 中共과 북괴에 대한 영향력은 역시 소련이 갖고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방향을 바꾸어 소련과의 접촉을 시도하기로했다。국무성의 프리맨・매튜스에의해 새아이디어가구상됐다。국무성의 정책담당참모를 지냈고 미국정부내에서 가장 유능한러시아문제전문가로서 당시「美・蘇관계」라는책을 집필하기 위해 프린스턴대학에 나가있던 조지・케넌을 동원, 소련과의 접촉을 시도해본다는 것이었다。

조지・케넌은 5월18일부터 25일까지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각서에서 이렇게 적고있다。『18일 P (국무성유럽담당부차관매튜스를 지칭함)로부터 호출을 받고 워싱턴으로 갔다。O (애치슨국무장관)와 얘기를 나누었다。O는 나에게 X (유엔주재소련대표말리크)와 접촉해달라고 부탁했다。22일E (유엔주재미국대표단의한사람)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X에 접근하는 방법을 논의했다。E가 X에게 22일과 23일전화로 접근하려했으나 실패했다』

케넌시켜 말리크大使 면담

休戰協商의 실마리

케넌은 당시 미국정부관리의 신분이 아니었으며 소련이 그를 선전구호나 늘어놓지않는 솔직한 외교관이며 학자로서 존경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적격자로 간주됐다。애치슨은 케넌이 다음과 같은 미국측메시지를 휴대하고 유엔주재 소련대표 에콥・말리크에게 접근토록 허락했다。『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충동에 끌려 양대국이 원치않는 정면충돌로 빠져들어가고있다。양진영이 현재의 전투부대위치에서 휴전을 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내용이었다。

케넌은 26일 유엔주재 소련부대표 차라프킨에게 말리크와 만나고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케넌은 이편지에서『당신도 알다시피 본인은 현재 국무성을 떠나 프린스턴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고있다。나는 가까운시일, 가능하다면 31일이나 6월1일에 말리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휴전협상분위기는 점차 무르익기시작했다。케넌은 31일 말리크를 만났고 그는 다시 그내용을매튜스국무성부차관에게 메모로 적어보냈다。케넌은이날 말리크를 방문, 약2시간30분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의 점잖은 태도는 흡사 나는 소련대표로서 대화할 가치있는 미국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언제나 좋다는것 같았다고 말했다。케넌은 그에게한국휴전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지않았다고 말했다。

말리크는 모든 외국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미국정부의 한국정부의 장래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케넌은 한국이 민주적인 독립국가가 돼야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말리크는또한 한국전의 휴전을 논의하기위한 기반으로 어떤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케넌은 끝으로 또다시 만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말리크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부정적인것은 아니었다。

케넌은 당초 이회담에 유익한 것이기는 하나 결정적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케넌은 그후 말리크와 여러차례 후속회담을 갖고 소련이 가능한한 가장 빠른시기에 적대행위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리크의 시사를 받자 휴전의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느낌을 보고했다。

케넌은6월5일매튜스국무성부차관에게 다음과같은 메모를 보냈다。『말리크와 만나 다시 한국문제를 거론했다。나는 휴전문제에관해 소련측의 견해가 어떤것이냐고 물었다。즉 휴전문제에관한 토의에 누가참석해야하는지 그토의의 지위는 어떤 것이어야하는지에대해 물었다。그는 소련은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원하고 있으나 소련군은 한국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않고있기 때문에 휴전에관한 토의에 참여해야한다고 느끼지않는다고 말했다。소련이 휴전과 관련된 토의에 참석하기를 꺼리는것은 북한과 중공때문인것같다。결론적으로 우리는 휴전을 향한 행동을 취하는데 주저하지말아야한다』고 케넌은 기술했다。

소련정부가 평화회담에 직접참여할 의사를 밝히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케넌은 소련이 그공산주의 동맹군(북괴군)을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할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했다。

수주일이 지난후 케넌은 애치슨장관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38선을 이미 다시 확보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승기를 발휘하도록 촉구했다。한국에서의 적대행위가 조속히 종식되지않을경우 소련이 여타지역에서 분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직관에 근거를둔 경고를 케넌은 발하기도했다。

6월23일 말리크대사는 방송연설을 통해 남북한양측이 38선을 경계로한 양군의 상호철수에 바탕을 둔 정전과 휴전문제를 협상하기위해 만나게될 것이라고 암시했으며 트루먼대통령도 이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해서 휴전협상으로 발전한양측의 회합은 이로부터 2주일후에 시작됐다。

◇錦江방위선을 사수하고있는 美軍병사들。그러나 51년 4월께부터 전선은 漢江부근으로 북상하고 5월중순에는 춘계대공세가 취해졌다。이때를 전후하여 철수론은 뒷전으로밀려나고 휴전선을 어느지점으로 설치하느냐가 논의의 초점으로 부상했다。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449-8446, 449-8645, 445-1516

금주의 새 리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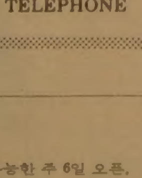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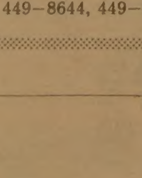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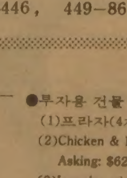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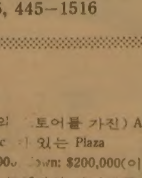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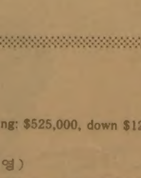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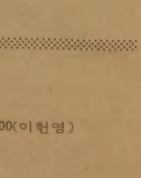
●버라이어티 스토어
(1)주매상: $12,000, $9,000, $6,500, $4,300, $4,000, $4,000, $3,800(임윤식)
(2)그로서리: 주매상 $14,000 asking: $200,000(이헌영)
주매상 $7,500 asking: $125,000(이헌영)
주매상 $14,000 asking: $250,000(황용현)
(3)기프트숍(Gift Shop): 연매상 $473,000 asking: $159,000
●하드웨어: 연매상 $250,000 asking $35,000+Stock(임윤식)
●Nut & Candy Shop
(1)Busy Shopping area에 있는, 권리금 $47,000(유웅복)
(2)Shopping Center에 있는, 권리금 $107,000(유웅복)
(3)Downtown Shopping center에 있는, 권리금 $35,000(황용현)

●꽃가게: 여자분 혼자서 경영이 가능한 주 6일 오픈.
권리금: $45,000(임윤식)
●가게 꾸밀 건물
(1)주매상 $5,000 예상하는 빈가게 down $25,000(황용현)
●드라이크리닝(Dry Cleaning)
(1)주매상 $1,800 오샤와, 새로꾸밈 asking: $69,000, down: $40,000(황용현)
(2)주매상 $1,300 스카보로 아파트 밀집지역 asking: $48,000(황용현)
●Fast Food(Mall에 있는) asking: $88,000(유웅복)
●Fish & Chips(downtown shopping center에 있는)
주매상: $8,000, asking: $279,000(황용현)

●부자용 건물
(1)프라자(4개의 … 토어를 가진) Asking: $525,000, down $120,000(이헌영)
(2)Chicken & Mac … 있는 Plaza
Asking: $625,00… …wn: $200,000(이헌영)
(3)Laundry 가게 붙(6개의 아파트를 가진) down : $150,000(유웅복)
(4)코너 건물, asking: $89,000(유웅복)
(5)15개 스토어가 들어있는 Plaza, asking: $1,350,000(유웅복)
(6)가게 달린 집(Yonge at Aurora) asking: $136,000(유웅복)
(7)Plaza(14개 가게가 달린) asking: $1,500,000(황용현)
(8)건물 달린 가게(코너건물) 주매상 $5,000
가게: $50,000, 건물: $120,000(황용현)
(9)가게 달린 집, 연매상: $300,000, asking: $154,000
down: $60,000(유웅복)

주택상담실 설치

그동안 저희 회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저희는 많은 분들의 요구에 의해 주택상담실을 설치하였읍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파실 계획이시거나 새 주택을 마련코저 하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상담에 기꺼이 응하고저 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좋은 조건의 모게지 알선
(2)가옥의 가치 평가
(3)가옥의 구조변경에 관한 문의
(4)가옥의 투자 상담
(5)가옥 구입시 필요한 제반 지식 제공


황용현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임윤식 (R)636-7950

김분옥 533-9061

유웅복 (R)447-9395

「秘史 1951년韓國」총결산-기나긴 休戰協商의 시작

"休戰안되면 滿洲폭격"

유엔주재 소련대사 말리크가 6월23일 방송연설을 통해 한국에서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정전과 휴전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지 2주가 지나 휴전협상이 개시되었다. 유엔군측 협상대표 찰즈·터너·조이 美해군중장과 북괴군 대표 南日, 한국측에서는 白善燁장군, 중공측 에서는 鄧華등이 開城에서 개막된 휴전회담에 참석했다. 공산측은 협상벽두부터 한반도에서의 즉각적인 외국군대철수를 들고 나왔다. 유엔군측은 이에대한 외국군철수문제는 전반적인 문제가 토의될때 거론할문제이며 협상의 의제를 한국전 휴전에 관계되는 군사문제에 국한시킬것을 주장했다. 바로 그날 휴전회담결과를 보고 하는 리지웨이 장군이 미국합참의장 앞으로 보낸 극비전문은 북괴군 대표부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오직 南日만이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보고서는 南日이 지나치게 자신에 차있으며 협상에 임하는 공산측입장을 혼자서 대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휴전협상을 개시하는 자리에서 유엔군측은 다음과 같은 9개항을 공산군측에 제의했다.

①의사일정의 결정 ②국제적십자대표단의 전쟁포로수용소방문허용 ③앞으로의 협상을 한국전쟁에 관계되는 순수한 군사문제에만 국한시킬것 ④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의 종식 ⑤비무장지대의설치 ⑥군사정전위원회의 조직과 권한및 역할의 설정 ⑦군사정전위원회의 지도아래 휴전을 감시할 군사감시기구가 취할 행동원칙에 대한 결정 ⑧군사감시기구의 조직과 기능의 설정 ⑨전쟁포로에대한 합의 등이

李博士의 制動 美의 兩面작전

"原爆사용…3·8線없애야" 李박사

"3次戰나면 한국 못돌봐" 리지웨이

"中共海上 봉쇄로 壓力을" 美合參

유엔군측이 제시한 9개항이었다.

이에대해 공산군측은 다음과 같은 5개항을 제의해왔다.

①의사일정의 결정②38線을 군사분계선으로하여 이곳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할것③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의철수 (중공군포함) ④전투행위중지와 휴전을 공고히하기위한 보다 구체적조치들을 강구할것⑤휴전이 성립된후에 전쟁포로문제에 대한 협상을 할것등이 공산측의 제안이었다.

유엔군측은 공산측의제안중 38線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는 항목과 외국군대의 철수항목을 제외하고 이를 수락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휴전협상은 처음부터 난항이었다. 공산군측은 세부사항이 제기될때마다 융통성을 보이지않고 처음의 입장을 고수하려 들었다.

휴전협상의 의제를 결정하는데 만도 보름이상이 걸렸다.

7월26일에 가서야 외국군철수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적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다음과같은 5개항의 합의가 겨우 마련되었다.

①의사일정의 결정②적대행위 종식을위한 기본조건으로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 위해 양측사이에 군사분계선을 확정할것 ③정전및 휴전조건의 이행을 감시할 감시기구의 조직및 이기구가 갖게될 권한과 기능의 설정④전쟁포로에 관한 협상⑤양측의 관련정부에 대해 여러가지 권고를 할것등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협상은 의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 이뤄졌을뿐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공산측 대표단은 급기야 8월23일 開城근처에 유엔군측 공격이 있었다는것을 핑계로 일방적인 휴전협상 종결을 선언해 버렸다.

한국정부는 휴전협상이 시작되기전부터 휴전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李承晩대통령은 미국이 한국민의이익을 무시한채 일방적인 휴전에 동의할 우려가 있다고 미국의 협상노력에 사사건건 제동을걸고 나왔다.

리지웨이장군은 휴전협상이 시작된 7월10일 李承晩대통령을만나 휴전협상의 진행에대해 상호 긴밀히 협의할것을 제의했다.

李承晩대통령은 7월16일 휴전협상을 협의하기위해 들른 리지웨이장군에게 유엔군은 휴전을 하지말고 鴨綠江과 豆滿江까지 밀고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은 그이유로 공산군측은해군력과 공군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점을 들었다.

李대통령은 소련측이 휴전을 선전전에 이용하려 들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이 한국전쟁의 승자라고 주장하고 나올것이라 경고했다.

李대통령은 어떠한 댓가를 치르고라도 한국은 통일되어야만 하며 38線의 치욕스런기억을 이기회에 씻어 버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은 유엔군이 鴨綠江과 豆滿江까지 진격할경우 중공군은 본토로 퇴각해갈것이며 소련군은 퇴각해가는 중공군을 도울수 없을것이라는 종래 입장을 되풀이해서 주장했다.

李대통령은 휴전이 성립될경우 이는 유엔측이 공산주의자들을 도와주는셈이 될것이며 결과적으로는 3次대전이 일어날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리지웨이 장군에게 경고했다.

리지웨이장군은 李대통령의 3차대전 발발주장에 대해 만약 3차대전이 일어난다면 유엔은 한국전쟁에 전념할수 없을것이라 맞섰다.

왜 미국은 원자탄을 사용하지 않으려하느냐는 李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리지웨이장군은 미국이 한국전에서원자탄을 사용할 경우 3차대전이 일어날것이라 대답했다.

리지웨이 장군은 2시간동안에 걸쳐 왜 한국전쟁이 휴전되어야만하고 유엔군이 북진할수 없는가를 李대통령에게 애써 설명했으나 李대통령의 옹고집은 꺾을수 없었다.

李대통령은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를 떴다. 李대통령은 리지웨이장군에게 『당신이 무슨말을 하더라도 유엔군이 북진할수 없다고 나를 설득시키지는 못할것이오』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美국방성은 휴전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해서 회담개시 3일후인 7월13일부터 벌써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미국합참의장이 마셜국방장관에게 7월13일에 보낸 극비메모는 휴전회담의 진행과 더불어 적에대한 군사적압력을 가중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있다. 그러나 이 극비메모는 중공군과의 전면적인 대결은 피해야만 한다고 밝히고있어 한국전이 중공본토에까지 擴戰되는데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있다.

또 이메모는 한국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15개국가에 대해 중공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기 위해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공군을 한국전쟁에서 철수시키기위해 경제적 정치적 압력과 함께 중공에대해 해상봉쇄를 실시할 것도 아울러 건의하고 있다.

이메모는 마셜장관에 의해 5일뒤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되었다.

마셜장관은 이보고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開城에서 휴전협상이 개시되자 휴전협상을 위한 미국과 영국등 참전국가 사이의 막후협의도 활발해 졌다.

애치슨 美국무장관은 7월19일 모리슨 英국 외상에게 극비전문을 보내고 한국전휴전협상의 가장큰장애는휴전을 바라보는 李承晩 대통령의 태도와 한국국민들의 거부반응이라고 실토했다.

애치슨은 이전문에서 자신이 보기에는 휴전협상은 낙관적 요인보다 우려되는 요인을 더많이 포함하고 있는것같다고 모리슨외상에게 말하고있다.

애치슨은 또 중공과 소련이 한국전휴전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중공과 소련이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점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공의 목적은 단순한 한반도장악에 있는데 반해 소련은 한반도적화를 통해 자유세계의 결속을 와해시키려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택하고 있는것으로 분석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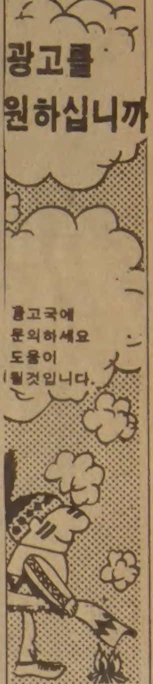
애치슨은 李承晩대통령이 만약 휴전이 성립되어 한반도통일이 실패로 끝날경우 이는 분명히 유엔군측의 패배를 의미하며 결국 대한민국의 와해를 가져올것으로 보고있다고 모리슨 외상에게 말하고있다.

◇휴전회담의 성립은 한국국민들에게는 전쟁의 패배라는 의미를 지녔다。 한국전쟁에서 불구가된 상이용사들이 통일없는 휴전은 패배이며 승리없는 전쟁은 있을수 없다고 휴전반대시위를 벌이고있다。

◇한국국민들의 休戰회담 결사반대태도는 李承晩대통령의 옹고집과 함께 휴전회담의 진행에 있어 미국과 유엔군측을궁지에 몰아넣었다。 피난지 釜山에서 각도출신 국민들이 궐기해 統一없는 휴전회담의 반대를 외쳤다。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 (⑥에서 세번째) 과휴전대표단。 ⑥로부터 그레이기공군소장, 白善燁장군, 조이해군중장, 호데스육군소장, 버크해군소장。

◇휴전회담에 참석한공산군측대표。 ⑥로부터 북괴군의 소장 장평산 한사람건너 소장 이상조, 대장 南日, 중공군의 謝方, 鄧華。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戰後의 統韓방안…①案 北韓을 한국에統合 ②案 南北韓자유선거

代表 不參說에 트루먼親書

공산군측과 휴전협상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정부는 고집불통인 李承晩대통령과 사사건건 의견충돌을 빚는 고욕을 치러야했다.

滿洲국경까지 총진군해서 한국정부의 주도아래 한반도를 통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李대통령은 開城에서 진행되고있던 휴전협상에 불참하겠다고미국측을 위협하고나섰다.

51년7월31일 무쵸駐韓美대사는 애치슨국무장관에게 극비전문을 띄워 『한국측휴전협상대표인 白善燁장군이 휴전협상에대해 의구심을 갖고 앞으로 사태진전에따라 협상에 불참한다고한다. 李대통령이 옳지않은 방법으로 휴전협상을 방해하려면는 최근의 예다』라고 알렸다.

무쵸대사는 리지웨이장군의 제의에 따라 李대통령을찾아 白장군에 철수명령을내린 행위에대해 구두로 항의했다.

한국의 반발

李대통령은 그런바없다고 말했다.

무쵸대사는 직접 명령은 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국방 외무장관등각료급인사들외에 3군참모총장들이 [illegible]없이 白장군을 방문한 사실을 들춰냈다.

그러자 李대통령은 15분동안 미국이 1883년 체결한 韓美수호조약을 이행치않아 高宗황제가 1904~1905년에 겪었던 수모를 회고했다. 그리고나서 李대통령은 자신이 白장군에게 조국의 분단에 동의하도록 명령할수는없다고 말했다.

李대통령의 위협에 당황한 트루먼대통령은 親書를보내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다짐하면서 협상을 계속해야할 입장을 설명했다.

공산측은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하여 비무장지대(DMZ)를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유엔군측은 현재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고 이분계선으로부터 DMZ가 획정되어야한다는 상충된 입장만이 팽팽히 맞섰다.

공산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새로운 제안이 나오지 않았다. 유엔군측대표인 조이제독은 南日에게 地圖협의를 하자고 여러번 제의했으나 南은 도무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國府軍의 中共상륙등 검토

미국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전투행위를 지속할 경우에 대비한 3단계의 대안을 수립했다.

8월3일 존·히커슨 美국무성유엔담당차관보와 리빙스턴·머천트極東차관보대리는 『휴전이 성립되지 않을경우에 대비한 행동지침』이라는 메시지를 국무장관에게 상정했다.

A案은 협상이 완전 결렬되고 공산측이 대규모공세를 전개하지만 대규모공습을 하지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군사작전면에서 유엔군사령관에게 전투범위를 최대한 확대토록 지시, 元山港과 大同江을 잇는 전선에 대한 北進제한해제, 중공과 한국의 反共게릴라활동에대한 효율적 지원, 鴨綠江댐및 발전시설에대한 공습제한해제 (羅津항제외) 등이다.

▲심리전으로 北京과 모스크바를 이간시키는 노력이 포함되어있고▲유엔관계에선 중공의 모든해상봉쇄등 완벽한 경제제재조치및 유엔참전국의 확대등이 그내용이다.

B案은 A와 같은 상황에서 적이 유엔지상군이나 해군에대한 대규모공격을 감행하는 경우를 들었다.

▲군사작전면에서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참전국가와 협의를거친후 적전투기가 발진한 滿洲와 중공내의 공군기지 (단 旅大와 大連은 제외)및 그기지를 방어하는 대공포시설에대해 공격을 감행하는 긴급추적, 자유중국의 國府軍을 중공에 투입하는 타당성검토등이 고려됐다.

戰鬪 계속대비

C案은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있고 공산측이 공세나 대규모공격을 전개하지않고 滿洲에서 적군사력이 현저히 증강되지 않는 경우 캔자스線방어진지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전술적인 전진만 한다는 계획이다.

공산측이 한국의 휴전반대운동에대해 이상스러울만큼 침묵을 지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휴전반대움직임은 똑같이 통일을 갈망하는 북한으로부터 중요한 선전수단을 빼앗은 효과를 지닌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그들의 선전이 허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폭로시키는데 이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주기 바란다. 은밀히 추진해야 한다』라는 극비전문을 보냈다.

회담이 계속 교착상태에 직면해 있던 8월23일 공산측대표단은 開城인근에서 유엔군측의 불법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트집을 잡아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그후 만두달간 휴전협상은 중단됐다. 미국정부의 고위급회의에서 리지웨이장군은 開城이 회담장소로 부적절하다는 불만을 토했고 그에따라 정부는 그에게 다른장소를 물색하게 하는 권한을 위임했다.

트루먼 "強制송환은 못한다"

미정부는 앞서 알렉산더·커크駐蘇美대사에게 소련외상 안드레이·비신스키와 접촉, 美·蘇간에 한국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세계적인 문제도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견해를 전달토록 했다.

10월초 커크-비신스키회담은 만족스러운 분위기속에서 개최됐다. 그후 얼마안되어 휴전협상의 중공및 북한측대표들은 새로운 회담장소로 板門店을 제안했다. 미국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해서 板門店은 53년7월 휴전협정이 체결될때까지 양측의 협상장소가된 것이다.

회담에서 군사분계선설치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지만 이보다는 더 어렵고 심각한 문제는 전쟁포로문제였다.

이미 美합참의장은 마셜국무장관에게 공산포로송환에 관한 정책을 권고하는 다음과 같은 비밀문서를보냈다.

▲공산측에 억류되어있는 유엔군포로들의 적절한 안전을 조건부로 해서 駐韓유엔군사령관에게 합의가 이뤄지지않는한 중공·북한軍을 공산국 장악지역으로 송환하지 않게하는 권한을 위임한다.

▲유엔군포로의 안전을 조건부로駐韓유엔군사령관에게 중공군포로중 자유중국으로 가길 희망하는 모든 포로는 臺灣으로 송환할수있게하는 권한을 준다.

포로 交換난항

▲양측이 1차적인 합의가 이뤄질경우 유엔에 공산측에 억류된 모든포로들을 즉각 개별면담하게하는 권한을 준다。 이같은 방안은 유엔군에 억류된 공산포로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유엔군사령부는 공산측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북한및 중공군포로들을 인도적 견지에서 송환할 생각이없었다.

그러나 8월27일 美국무성은 마셜국방장관앞으로 그같은 포로송환정책은 공산측 손아귀에있는 모든 한국군과 유엔군포로의 송환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전문을 보냈다。 또한 『유엔군포로의 적절한 안전을 조건부로』라는 조항은 극히 애매한 것같다고 거절했다.

공산측 포로 14만5천명에 비해 1만6천명에 지나지 않는 연합군포로들의 석방을 보장하는 빠른 방법으로 휴전협상 테이블에서 포로전면교환구상이 공산측으로부터 제기되었다.

트루먼대통령은 강제송환을 혐오한다는이유로 전면교환구상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포로교환문제에대한 미국의 정책수립은 백악관에 일임됐으며 트루먼대통령은 강제송환이 아닌 1대1의 교환원칙을 고수했다. 포로교환문제는 53년7월까지 板門店회담에서 논란만을 거듭할뿐 미해결문제로 남아있게 되었다.

한국측에 ②案 수락을 유도

미국은 공산측과의 휴전협상과병행하여 전쟁이 끝난후에 한국통일문제를 처리하기위한 구상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 메모는 휴전협상이 타결된후 한반도에 민주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①북한을 기존의 한국정부에 통합하는案②南北韓정권을 모두 새로선출되는 정부로 대체한다는案을 제기했다.

①案은 한국국회에 공석으로 남아있는 北韓지역의석을 채우기위해 유엔주도하에 北韓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한국정부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유엔내의 공산국뿐 아니라 非공산국가들조차도 강력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②案은 유엔감시하에 한반도전역에서 자유선거를 실시, 제헌의회를 구성한뒤 기존의 남북한 정권을 퇴진시키는 방안이었다。 한국정부가 이안에 반대할 것으로 미국정부는 판단, 한국정부가 ②案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11월중순께 접어들어도 회담은 교착상태를 계속할 뿐이었다。 이때 美합참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리지웨이장군에게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수락하는 협정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리지웨이장군은 공산군측이 전선에서 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만큼 협상의 타결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리지웨이는 결국 워싱턴의 요구에 굴복해야만 했다。 한국정부는 開城이 한국영토란는 것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休戰후의 대책

무쵸대사는 11월5일 李대통령을방문, 리지웨이장군이 협상의 현국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달라는 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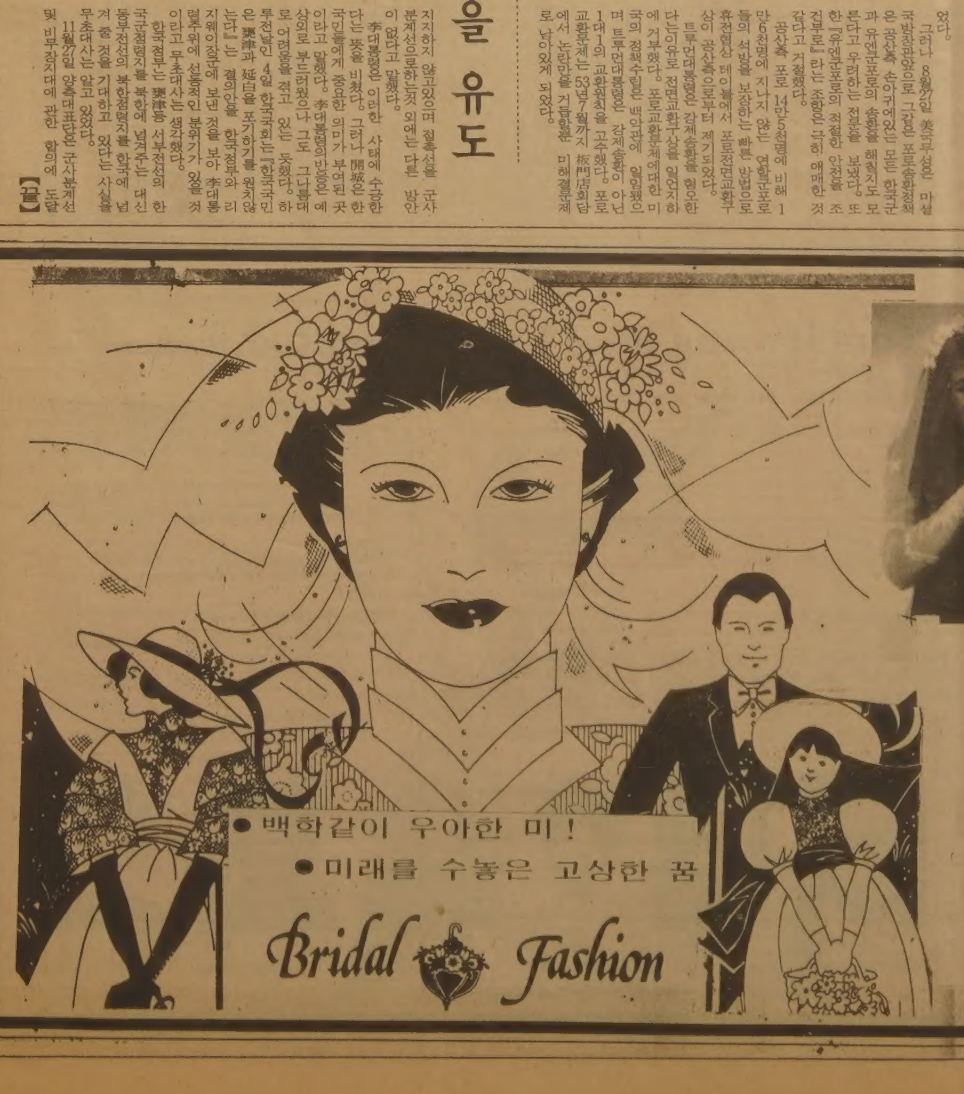
무쵸대사는 리지웨이장군이 38선으로 후퇴하자는 제안에 굳건히 대항한 것은 하나의 성공이라며 李대통령을 설득하려했다。 무쵸대사는 세계여론도 휴전협상의 지속적인 교착상태를 지지하지 않고있으며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하는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李대통령은 이러한 사태에 수긍한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나 開城은 한국민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 곳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의반응은 예상외로 부드러웠으나 그도 그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했다。 하루전날인 4일 한국국회는『한국국민은 甕津과 延白을 포기하기를 원치않는다』는 결의안을 한국정부와 리지웨이장군에 보낸 것을 보아 李대통령주위에 선동적인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무쵸대사는 생각했다.

한국정부는 甕津등 서부전선의 한국군점령지를 북한에 넘겨주는 대신 동부전선의 북한점령지를 한국에 넘겨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쵸대사는 알고 있었다.

11월27일 양측대표단은 군사분계선및 비무장지대에 관한 합의에 도달 【끝】

【워싱턴=李文熙 특파원】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APT 룸메이트구함. 시내에서 10분.
1 Room과 리빙룸. 월200불, 즉시입주가능함.
#1410. 55 Triller Ave.(직접내방요) 전화 : 624-0098

여자 룸 메이트구함.
학생환영. 오후10시 전화.
전화 : 593-6228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여자분 원함. 다운타운지역.
전화 : 925-0339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새 장비를 갖춘 버라이어티상점(Soter)
메니저 구함.(월수입 3,000불 보장. 약간 보증금요)
전화 : 1-727-6665 (AURORA)

가게 맡아서 하실분.
주매상 현재 2천불.(더 올릴 수 있음) Rent $200
전화 : 691-4426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남자헬퍼 1명, 여자헬퍼 1명구함
628 Bloor St. W. Tor. 전화 : 536-0290.

식품점에서 일할 젊은이 구함.
오후6시-오후 10시까지(주7일간). 시간당 $4
원하시는 분은 삼복식품으로 직접내방 바람

가정에서 재봉일 하실분구함.
(오바록과 공업파워미싱소유자로서 유경험자)
상세한 문의는 전화 : 530-1046(오후6시이후)

파트타임 스토어 헬퍼 구함.
유경험자원함. 남녀불문.
전화 : 691-3666. Mr. 리.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남자헬퍼 구함.
전화 : 883-1956(오전중) Mr. 리.

버라이어티 스토어
리스 또는 매니지먼트. 주매상 $9,000
전화 : 251-3559(12:00~6:00pm)Mr. 송

풀타임 경험있는 캐쉬어 여자구함
전화 : 465-8167

샌드위치 커피숍에서 일하실 분 구함.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유경험자 원함.
직접 내방바람. (오후 3시~5시30분까지) 금~토
55 University Ave. Mrs. 한.

금구 가게맡아서 하실분. 년매상 26만불.
Stock만 지불. 렌트 700불. 조건없음.
1-(705)454-3411 Jim

〈새동네 펜팔클럽 회원모집〉
금번 본 클럽에서는 모국과 캐나다사이에 사업연결 또는 배우자관계 등등. 그리고 양자, 양부모 희망자등에 관심있으신 분에 한해서 선착순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상담 기간은 4월18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매월 2일간 봉사합니다.
•유자격 : 만30세-60세 전후
•기 간 : 월-금(오후1시~5시까지)
•전 화 : 530-1046
새동네 펜팔클럽회

구 혼

신부 구함. - 진실하고 건강한 여성 구함 - 저는 45년생(시민권 소지자)으로 개인가게를 갖고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랍니다. 전화 : (B)273-3920, (R)273-9821 Mr.리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illegible]7-18[illegible]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매 매

한국 전통의 고가구 팝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저녁7시부터 9시까지)
전화 : 248-6531 Mr. 김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전망좋은 버라이어티 매매
주매상 $5,500, Asking $60,000+스탁
꼭 관심있는 분 연락바람. 전화 465-4358 Mr .김

금고를 이용하세요!!
*완전써비스 *각종모델 *100불부터 보험가입
*자세한 사항은 690-8950 David

그로서리 가게 매매. 해밀톤 지역.
Gross Income 월 $6,900. 아스킹 $4만+스탁
전화 : 1-560-6400 Mr. 정

Fruit Store(과일가게)
Plaza안에 있고 좋은 Turnover
전화 : 745-2300 Jim Taylor, Re-Max West Realty inc.

보석및 선물가게 매매
비즈네스가 잘되는 시계및 보석취급으로 오래전에 세워진 가게임. 전화 : 531-4486(낮), 635-0511(저녁)

빵가게 (프라자내)
$50,000(도구 포함). LEASE(5 YRS)
Dufferin & Steele. Call Susan Tallilo 745-7551

이익 좋은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일요일 문닫고 2층에 살림집 있음.
자세한 문의는 전화 : 266-4866.

3개월 사용된 선반달린
20 ft. Vegetable Cooler 급매
전화 : 421-6880 Mr. 리

MEAT SHOW CASE(고기냉장)길이 12휘트(ft)
537-1664 Mr. Foto. 972 Ossington Avr.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주매상 $7,000이상+건물
전화 : 921-4283(오후1시-3시사이)
456 Gerraed St. E.(at River)

보석·선물가게 매매
주인이 은퇴함(외국사람)
전화 : 742-7399 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5년리스(렌트 $1,100) 아스킹 4만+스탁(로타리오머신 및 비데오머신 2대)
전화: 535-1916

밍크직매점 후랜차이스 매매
다운타운 호텔안에 있음. 연수입 보장.
약간의 보증금 요함. 전화: 532-8662, 535-7878

★웅 담★
캐네디안산. 증거물 있음.
여러 크기. 가격 : $70
전화 : 534-7786 (저녁)

최신형 고급 카메라(신품) 매매
라이카 M4-P, 90mm 렌즈, 와인더, 메타, 케이스
Regular 가격 : $2,500. 파는 가격 : $1,740
★ 꼭 사실 분만 연락요망.
전화 : 630-5474

버라이어티스토아 이사관계로 매매
2 Bedroom 아파트와 차고 포함
12만9천불+Stock(해밀톤) 전화 : 1-389-7755 Mr. 차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베츌러 Sublet
전망좋음. 즉시 입주 가능. 월$319
전화 : 533-8197. King & Dufferin

아파트 임대. Large 1 Bed Room.
수영장, 사우나있는 고급 아파트.
$410/Month. Mr. 리. 전화 : 863-6072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춘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향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퀴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방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흥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선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한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토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